구본무, 獨에 세일즈 외교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제332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2009.55 (-9.50)

코스닥 668.92 (-3.90)

금리(국고채 3년) 1.66 (+0.02)

환율(원·달러) 1145.00 (-4.50)

고려대학교는 14일 국내 대학 최초로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계곤란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대, 성적장학금 없앤다는데…

우등생 대신 소외층 배려

국내 대학 최초 내년부터 성적장학금 폐지

기초수급자에 매달 30만원 지원
근로장학생 시급 1만원 책정 등
가계 어려운 학생에게 기금 집중

염재호 총장
"형편때문에 학업 소홀하면 안돼"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새 장학제도를 내놨다. 기존 성적장학금은 내년 1학기부터 없애기로 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것을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기숙사 혜택을 우선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1~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근로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급 5800원 보다 두배 가량 높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해 매달 생활비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고려대 측은 설명했다.

다만 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

3~5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과·대학의 장학위원회의 심층심사를 통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소득분위 중간계층 학생들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학업, 연구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리장학금제가 마련됐다.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장학금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가 2013년부터 참가 학생들에게 수업료,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차이나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 고려대는 라틴아메리카·베네룩스3국·일본·유럽 등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고 IT·BT 등 분야별로도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각 단과대가 관련 프로그램 장학제도를 기획해 제안하면 장학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은 폐지하되 입학할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지영 고려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획 의도"라며 "기계적 배분이 아닌, 맞춤형 장학혜택을 통해 미래인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고려대 제47대 총학생회는 총장 기자간담회 직전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장학금 제도 개편은 권위주의적 독선"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장학금 분배 방식이 뿌리채 바뀌는 제도 개편을 학생들이 기사를 통해 통보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 측은 즉시 학생들에게 장학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고대 재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남은 학기가 걱정된다"며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려 해도 가정의 소득 수준을 보기 때문에 교내 성적장학금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비를 덜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알림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metro 인턴기자 모집

인턴기자 모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스마트 미디어시대의 개척자로 꿈을 펼칠 메트로미디어가 인턴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무대'에서 기자로서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십시오. 글로벌시대 선진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취재·편집(디자인 경력 우대)·온라인뉴스기자
2. 응시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3. 지원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1부
4. 원서접수 기간 : 2015년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
5.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 ads@metroseoul.co.kr
방문·우편접수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주)메트로미디어 경영지원실 앞

※ 인턴 수료 후 우수기자 정규직 채용

글로벌기업 슈퍼 M&A 전쟁

GE·AB인베브 등 대어 매물로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의 M&A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영국의 금융 조사업체 톰슨 로이터의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M&A 총액은 3조4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07년 같은 기간을 웃도는 규모다.

이는 세계 최대 맥주기업인 벨기에 AB인베브가 영국의 SAB밀러에 이달 초 제시한 인수 금액 1153억 달러(부채 포함 총액)를 더한 금액이다. 13일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Dell)이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 EMC를 67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은 제외된 금액이다.

이달초 초까지 집계된 지역별 M&A를 보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사상 최고치였다. 유럽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는 종전 최고기록(2007년 4조1200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규모가 사상 최대 속도로 커지는 요인은 대형 M&A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B인베브의 SAB밀러 인수는 역대 4위에 해당하고 델의 EMC 인수는 정보기술(IT) 업종에서는 최대의 M&A로 평가된다. 이날도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웰스파고에 금융서비스 사업 일부를 320억달러에 매각했다.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진 것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당분간 수요 확대가 불투명해지자 설비 투자에 따른 성장 추구가 어려워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영 전략이 투자 대신 M&A로 덩치를 키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석유 메이저인 로열 더치 셸이 영국 브리시티 가스 그룹에 810억 달러에 대형 인수를 제안한 것도 저유가 환경에 따른 생존 전략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조한진 기자 hjc@

The 'Pay war' just broke out

페이전쟁 막 올랐다

While Samsung Electronics is leading Korea's mobile payment market with Samsung Pay, LG Electronics is also planning to launch 'G-PAY(working title)'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will begin in earnest.

LG Electronics applied for a patent on its 'G-PAY' last month in Korea and the U.S challenging ICT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pple and Google in a highly competitive mobile payment market. Besides, the company applied for a patent on 7~8 trademarks including 'L-PAY' and 'LG-PAY' as well as 'G-PAY' from June to July in Korea.

On the 13th, an LG official said that "The mobile payment system that is developed by LG will be launched by this year. This payment system has a great convenience, generality and security."

Kim Jong-hoon, the leader of product planning department, said "LG Electronics is working on its own payment service and there will be an official presentation about the service" in a press conference when the company launched a smartphone V10 on the 1st. However, he was silent on the entry of the U.S market.

It is clear that LG, Apple and Google joining in mobile payment market, which is being dominated by Samsung pay, will make the competition become more severe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도 이르면 다음달 'G-PAY(가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LG전자는 지난달 'G-PAY'를 한국과 미국에 상표출원하고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앞서 6~7월에는 한국 특허청에 'G-PAY'를 포함해 'L-PAY', 'LG-PAY' 등 7~8가지 상표를 등록했다.

13일 LG전자 관계자는 "연내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용 편의성과 범용성, 뛰어난 보안성을 장점으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V10'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훈 LG전자 상품기획그룹장은 "LG전자도 결제 서비스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 LG전자의 합류로 내년 상반기 '페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것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지원금 중단·삭감을 거론하는 것에 일본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

▲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 **미국**이 남중국해 상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군사 시설물' 강화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남중국해 갈등이 다시 한번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

▲ 청와대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문제삼으면서 국정교과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전투기 4대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불리는 **가을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한국이 참전한 베트남전의 명전투로 기록된 '짜빈동 전투'의 영웅, **정경진** 예비역 중령이 향년 79세로 14일 별세했다.

사회

▲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가 대학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고대, 연대, 경희대 등 사학과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 최광 이사장을 문책한다고 밝혀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고소득 전문직 등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다.

중동부전선 최전방고지 겨울 준비 한창 14일 강원 화천군 중동부전선의 적근산 정상에서 육군 15사단 병사들이 헬기로 공수해온 월동용 난방유를 저장고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등에 업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점령, '명분'을 앞세운 법정공방에 이어 지분싸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일 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능력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세계 기업들의 M&A 총액은 3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집계돼 M&A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중공업**이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로부터 46억 달러 규모의 알주르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NRP)를 수주했다.

▲ **두산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속력을 올리는 가운데 신용등급 강등이란 뜻밖의 악재를 맞이하면서 계열사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두산의 재무구조 개선 조치에 기대를 걸며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다.

▲ **구본무** LG 회장이 14일 국빈 방한기간 중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에게 LG의 첨단·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직접 안내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은퇴와 퇴직 상품의 공동 개발에 나선다. 캐피탈그룹은 삼성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과 장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이 1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다. 1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23개국 800여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첨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생활가전기업 **코웨이 인수전**이 3조원에 달하는 높은 몸값에 흥행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기업은 CJ그룹이 유일하다.

신동주, 광윤사 접수

신동빈 이사직서 해임 롯데 "경영권 문제없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14일 주주총회에서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대표(사진·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는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뒤를 이어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신 대표는 본인의 광윤사 지분 50%에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주식 1주까지 넘겨받아 광윤사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사실상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를 손에 넣은 것이다.

신 대표는 본인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 1.62%를 합해 총 29.72%의 롯데홀딩스 의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당장 롯데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지난 8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이 열리기 전부터 광윤사의 지분을 확보했었지만 주총에서 신 회장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이번 주총 결과는 형식상 신 회장이 광윤사에서 배제됐다는 것 이외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신 대표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27.8%)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 지주회의 의향은 이미 신 회장에게 넘어가 있다.

신 대표는 롯데홀딩스 이사회소집 자체도 불가능하다.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긴급이사회의 소집은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이사회가 모두 신 회장에게 넘어간 것이 확인된 이상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대표의 의사에 따라 소집될 가능성은 없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는 그저 최대주주일 뿐이다. 롯데홀딩스는 주식회사로 30% 남짓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해임된 신 회장의 이사직에는 롯데홀딩스 이사인 이소베 테츠(礒部哲)가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이소베 테츠는 20년간 신 총괄회장의 비서를 맡았던 인물이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시종일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평소와 같이 소공동 본사로 출근해 업무에 전념했다. 해임 직후에는 롯데그룹 경영권과는 별개라며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결정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룹 측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거로 8월 롯데홀딩스 주총 승리를 꼽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총 때도 신동주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을 내세웠지만 주총 결과 영향력이 없었다"며 "롯데홀딩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가 28.1%로 가장 많고 종업원지주회 27.8%, 5개 관계사 20.1%, LSI 10.7%, 롯데오너일가 6.0%,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이다.

/김성현 기자

명분 vs 능력… 롯데의 선택은

<신동주> <신동빈>

롯데家 경영권 분쟁 절정 직원들 '경영능력' 방점

아버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등에 업은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점령, '명분'을 앞세운 법정공방에 이어 지분싸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일 롯데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능력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절정에 달한 지금 재계는 이번 싸움을 명분과 능력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가 인정한 후계자이자 그룹 지주사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물려받은 신 대표와 롯데를 10년만에 국내 재계 5위 기업으로 올린 신동빈 회장의 싸움인 것이다.

신동주 측의 고문을 맡고 있는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이번 싸움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와 형을 향한 쿠데타로 몰고 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은 자신보다 그룹 내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큰 형을 모든 이사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정보도 안주고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형제의 경영능력은 지난해 매출만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14일 광윤사 주주총회가 끝난후 정혜원 상무의 대독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신 회장은 지난해 한국 롯데를 경영하며 약 81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신 대표가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지낸 지난해 일본 롯데의 매출은 4조6000억원 수준이다. 2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러한 차이에도 신 대표는 신 회장이 경영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대표가 신 회장의 경영능력 부족을 주장하는 배경은 신 회장의 중국진출 실패다. 신 회장은 중국 진출 실패로 지난해 약 55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 4년간 약 1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남아 쪽은 성공적이다.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마트는 2007년 동남아에 진출,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조원, 베트남에서 15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 대표는 자신이 경영했던 일본 롯데홀딩스의 매출이 한국 롯데의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경제 저성장 기조 ▲일본저금리 자금 조달 ▲롯데의 한국 투자확대 의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선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롯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신 대표가 롯데홀딩스 부회장 자리에서 해임된 것은 그의 경영능력이 이사회와 신 총괄회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련의 사건까지 겹쳐 신 대표가 해임된 것으로 안다. 현재 이사회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을 지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노동조합도 신 회장을 지지할 정도로 신 회장의 경영능력은 그룹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명분인지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신 대표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세운 롯데그룹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급성 기관지염(감기)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본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으로, 국내 6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됩니다.

1. 지원요건

(1) 본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고 서면 동의서에 자의로 서명한 자
(2)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3)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의 가래(객담)를 동반한 기침증상이 있는 급성 기관지염 환자

2. 시험에 따른 제공사항

(1) 혈액 &뇨검사 / 신체검사 / 혈압 및 심전도 검사
(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3) 병원 방문 시 전문의에 의한 체계적인 진료 및 검진
(4) 진료비/ 검사비 / 홍삼 농축액 75mL 제공 / 정규 방문 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약물복용기간 및 방문횟수

(1) 총 7일 복용, 최대 3회 방문

4. 담당자 및 연락처

본 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 Call center : 010-2691-5539 / 010-2691-6444

자생한방병원 '외상 후 통증'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자생한방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멍이 있는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외상(타박상 낙상. 발목 염좌 교통사고) 의인성외상인 수술 등으로 인한 통증과 멍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적 연구 입니다.

대 상

2주 이내의 외상(타박상 낙상. 발목 염좌 교통사고) 의인성외상인 수술 등으로 인한 통증과 멍
나이 만 20세 이상 ~ 70세 이하인 남,녀
임상연구 전 기간에 참여 가능한자 (수도권 거주자)
본 임상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모집기간

2015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에 거쳐 총 70명모집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참여혜택

소정의 교통비 지급되며 임상시험 참여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본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검사비(혈액검진, 어혈진단검사), 진료비 (한약, 침, 부항)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방문기간 동안 소정의 교통비를 드립니다. 외상으로 발생한 멍(어혈)에 대한 진단 및 건강상태 검사

참가방법

선정 제외기준확인, 통증설문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증 및 멍(피하출혈)에 대한 한방치료 (한약, 침, 부항)를 2주간 약 6회 ~7회 받게 됩니다.
참여 기간 동안 2회의 혈액검사와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가신청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연구코디네이터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을 것입니다.
연구기관 자생한방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58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0007

교과서 만들기도 전 '친일' 낙인… 文의 오류

文 "친일·독재 미화" 주장에 시민 "어디가 친일이냐" 지적 진보누리꾼도 비판 잇따라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고, 집필진도 구성 안됐는데 그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비판이다. 한심한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답하면서 한 말이다. 기자들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2014년 1월 13일자 뉴욕타임스(NYT) 사설에 대해 김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NYT 사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서 고교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전날부터 세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반(反)국정교과서 행보를 두고 똑같은 비판이 제기되던 중이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왼쪽 네 번째)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바뀐 배경현수막에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꿉니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뉴시스

전날 문 대표는 국회 인근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문 대표는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는 식민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친일교과서이자 유신시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99.9% 지지로 당선된 것을 민주주의로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이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어디가 친일 교과서인지 설명해보라.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반대하냐"고 반박했다. 반박이 고함의 형태였고, 뒤이어 도착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까지 욕설과 고성으로 가세하면서 문 대표와 시민 간의 설전은 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문 대표를 향한 같은 내용의 비판이 잇따랐다. 비단 보수성향의 누리꾼만이 아니었다. 진보로 자처하는 누리꾼들도 참여했다.

한 진보성향 누리꾼은 "난동꾼이 따진 것을 두고 문 대표는 뭐라 답을 할 수 있었을까. 국정 교과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 대표는 지레 짐작한 것이다. 이게 대선 토론회였다고 생각해보라. 한방에 훅 가는 거다. 정치를 너무 못한다. 아마 이걸로 두고 두고 당할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구 세력은 백색 테러 수준으로 클 텐데 그들이 자라나는 양분을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제공하는 거다. 정말 요즘 나오는 핵노답(답이 없다의 강조 표현)이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새누리당의 현수막 아래 '이념 논쟁 그만해라. 좀 먹고 살자'라는 현수막 한 장 달면 될 일이라고 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거리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14일 거리에 나와서도 같은 말을 했다. 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 "역사에 대한 인식은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산 증언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를 몰아붙이고 있다"며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권과 똑같이 박근혜 정부도 역사 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또 다시 '종북'이나 '주체사상'과 같은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나 새정치연합이 '친일 수구론'으로 대응하는 것이나 과거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강동원 '대선 개표조작' 발언… 여야, 한바탕 논란

새누리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분열 책동"

선관위 "명예훼손" 반박 나서

청와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사진)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를 문제삼으면서 국정교과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이날 오전 일찍 한국에 전해지자 새정치연합은 '개인 생각'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맹렬한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자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으며 유권자를 모독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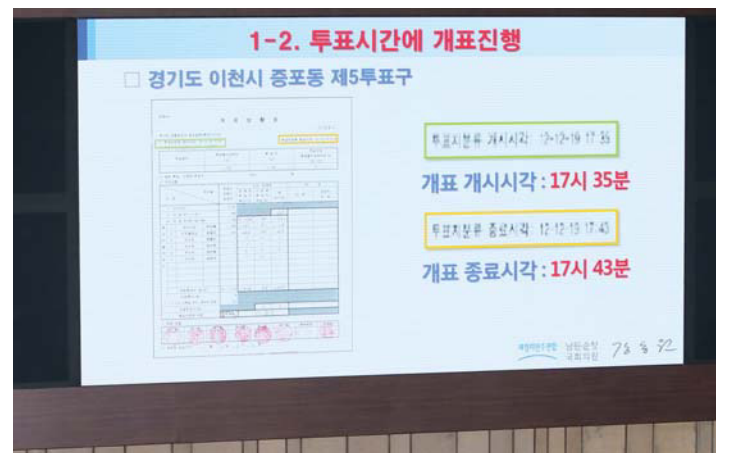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했던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본인의 선거 결과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 강동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본인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동시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강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이 강동원과 다르다면 즉각 출당 조치하라"며 "자진사퇴 및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할 때까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을 비판한 뒤 "급기야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선에 대해 선거부정과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올바른 교과서 반대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힐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도가 넘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라고 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까지 가세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식반박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한

강동원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준비한 '개표상황표' 등 자료를 보여줬다. /연합뉴스

유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으며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과도 전날밤부터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평민당 시절 김대중 당시 총재 비서 및 당 국장을 지내는 등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인사이다. 2003년 개혁당 전북 상임대표 등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전북 남원·순창에 당선됐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때 진보정의당으로 갔다가 2013년 5월 진보정의당을 탈당, '안철수 신당' 합류가 점쳐졌으나 지난해 3월 안철수 세력과 구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면서 새정치연합에 입당했다.

전날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지난 대선 개표 당시 공직선거법상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했고, 개표완료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관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됐다며 '개표조작'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기록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당시 개표 현장 감시 때 어떤 이의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강덕수, 분식회계 무죄

<前 STX 회장>

항소심서 감형돼 석방
'징역 3년 집유 4년' 적용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강 전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두부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기업인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공식이 강 전 회장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석방이 선고되자 대법정의 150석을 가득 메운 전 STX 그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패터슨 재판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시선

"강대국 희생양 감정 여전"

美 유력지, 대미피해의식 분석

"이태원 살인사건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특히 미국에 느끼는 국가 정체성, 위협, 피해의식 등을 둘러싼 진부한 이야기로 회자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지인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의 기사 중 일부다. '한국 : 20년뒤 캘리포니아의 젊은이가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패터슨 재판'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불편한 시선을 이같이 드러냈다.

CSM은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20년이 지났음에도 재판이 가능했던 이유를 용의자가 미국인, 특히 주한미군이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사에는 한 지한파 미국 외교관이 최근 펴낸 책의 구절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인의 대미 피해의식을 분석한 글이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반미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라는 책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국가가 됐지만 많은 한국인들의 의식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미국,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인 학자의 분석도 나온다. CSM은 "남창희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봉건시대나 일제강점기로 인해 한국인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범죄는 과도한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CSM은 특히 2002년 효순·미선양 사망사건과 2009년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997년 발생했던 살인사건이 효순·미선양 사건으로 촉발한 미국에 대한 '조용한 분노'에 노출됐고, 이후 잠복해 있던 이 같은 감정이 영화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시각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은 사건 당시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8일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섰다. 패터슨의 변호사는 그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죽게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송병형 기자

한민구, 카터와 KFX 기술이전 담판 시도

방미 길에 요청키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전투기 4대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국방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이다. 방미 이전에 미국측과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핵심기술의 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당국간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군사기술의 이전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 소관이라 카터 장관으로서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도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요청하는 핵심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전 사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황 총리는 "만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개발 가능성을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교육의 중심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11월 4일 ~ 11월 2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10시 / 총8강
● (주말반) 11월 8일 ~ 11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5시 / 총8강
현장교육 (별도옵션) : ~~250,000~~ → 80,000원
11월8일(일), 11월15일(일), 11월25일(수)
리더스옥션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교과서 국정화' 후폭풍…

교실로 들어온 이념戰… 교육계 곳곳 신경전

대안교과서 마련은 어려울 듯
'부교재' 집필 마련도 난항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내 민주광장에서 이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발해 대안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등 한계에 부딪쳐 현실화까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상가상 외부적으로는 교육부와 법적 다툼을, 내부적으로는 진보·보수 교육감 간 갈등이 잠재해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열어 국정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필두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전환에 찬성 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과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보조교재 사용도 쉽지 않을 듯

교육부와 교육청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논의 움직임에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교과서라는 이름의 또다른 책은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감들이 보조 교재, 참고 자료 등의 대안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보조 교재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마뜩잖게 여기는 교육부가 교과서와 보조 교재 사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교육부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법정 공방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4대 3 교육감간 이념 차이

내부적으로는 교육감 간 이념 전쟁이 불가피하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국정 교과서에 찬성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은 "교육 중립 차원에서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장 교육감 등 14곳의 교육감은 "관련 선택 과목을 개설해 인정 도서를 만들고 전국의 다른 교육감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견해차가 커 일치된 의견을 보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관측이다.

진보·보수 교육감 간 의견을 조율해 대안 교과서 개발에 합의하더라도 1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교실 현장에 투입된다.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대안 교과서가 완성돼야 국정교과서의 부교재 또는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선 교육감 간 의견 일치부터 연구·집필진 구성과 예산 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대안교과서가 개발돼 교실에 투입된다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관점이 엇갈리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정부도 난제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협업해야 할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 개발로 법적 갈등 조짐을 보이는데다 역사학계가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있는 집필진으로 한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은 젊은 학자부터 명망있는 명예교수까지 노장청을 아우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처럼 학자들의 불참 선언이 계속될 경우 함량 미달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필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정복 경찰에 휴대용 카메라 설치

경찰－피의자 양측 보호용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경찰청이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해 경찰과 범인 양측을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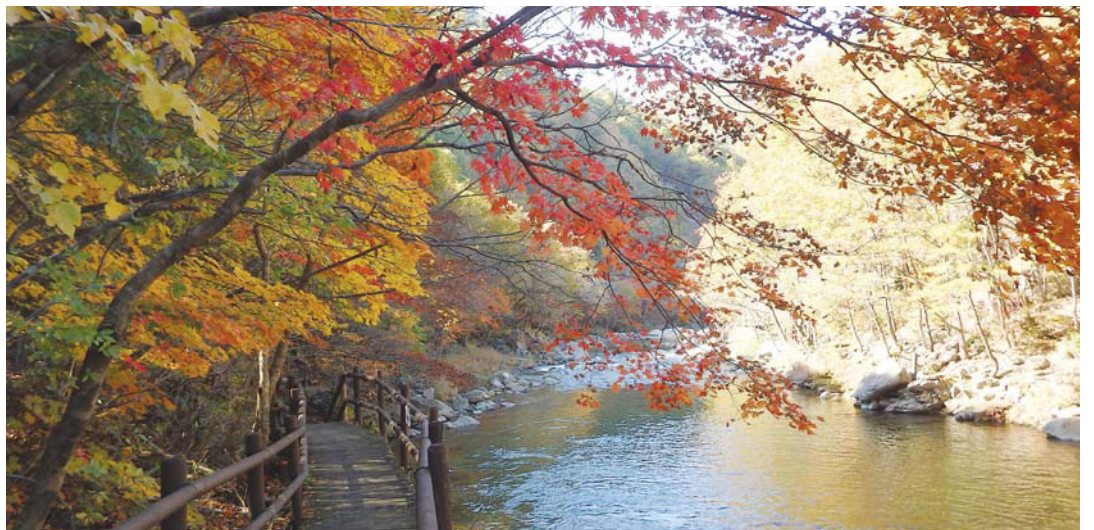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하기로 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사용은 금지된다. 이번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한 것은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이 직무수행 범위에서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 조항도 뒀다.

/연미란 기자

"지리산 단풍 구경오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는 오는 20~25일이 지리산 단풍의 절정기가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리산은 현재 1천m 이상 고지대에 단풍이 든 상태며 점차 저지대로 내려오고 있다. 사진은 예전의 뱀사골 단풍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法,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 배상 판결

유섬나 佛서 범죄인 인도재판 중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12억4900여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3400여만원을 뺀 2억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미란 기자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부문 12년 연속1위

NBCI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자산관리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의 은퇴·노후준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 및 비재무적 이슈까지
점검하여 노후설계

은퇴·노후설계 상담창구
KB국민은행 전국 850여개 영업점 VIP라운지에서
설계·상담 서비스 제공

행복노후설계 프로그램
행복노후설계 세미나 등
전문가의 은퇴·노후 준비
노하우 전수

다양한 은퇴 전용 상품
미래를 위한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 통장/적금/예금』부터
각종 연금저축·보험상품까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 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통법 1년… 이통사에 온 3가지 기회

1 1인 2단말기 시대
2 데이터 소비 폭증
3 저가 단말기 인기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과도한 보조금 지출이 제한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기 시작했다. 또 신규 가입자 보다는 기기변경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이통사에게 기회로 다가올 새로운 트렌드로 ▲1인 1단말기 이상의 수요 ▲개인 소비데이터 폭증 조짐 ▲저가 단말기의 인기 등 3가지 기회에 대해 살펴봤다.

◆ **1인 1단말기 이상의 수요 증가**

최근 웨어러블 빅뱅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웨어러블 시계다. 삼성전자의 기어S 시리즈, LG의 G워치, 애플의 애플워치 등이 출시되며 웨어러블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웨어러블 시계 전용 요금제는 통신사 별로 'T 아웃도어', '올레 웨어러블 요금제', 'LTE 웨어러블 요금제'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월 1만1000원, 8800원, 1만1000원의 요금으로 음성 50분 및 250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웨러블 요금제에 가입된 가입자는 8월말 기준 27만명에 이른다. 삼성, LG의 웨어러블 시계가 출시된 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중 SK텔레콤은 가입자 수를 타사보다 월등하게 많은 23만5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 **개인 소비데이터 폭증 조짐**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통신사의 실적을 견인할 핵심이다. 이 같은 트렌드 변화는 저용량 동영상 스트리밍 증가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자투리 시간을 공략하고 있는 TV캐스트는 영화와 달리 짧은 분량의 동영상이 주를 이룬다. 포털전용 예능 프로인 '신서유기'와 같은 TV캐스트의 분량은 회당 약 10분 정도로, 동영상 용량으로 환산시 200MB(HD급)다. 소비자들은 저용량 동영상 시청에 따른 데이터 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같은 트렌드를 타고 대표적인 TV캐스트 '신서유기'의 경우 회당 170만회가 재생됐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며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소비가 많으면 이통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향상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 **마케팅 비용 감소**

저가 단말기의 인기에 따른 이통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이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TG앤컴퍼니의 '루나', LG전자의 '클래스' 시리즈 등 사양은 상향 평준화되면서도 가격은 하향 평준화된 단말기가 인기를 끌면서 저비용으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들 단말기는 역시 높은 사양을 갖고 있지만 출고가가 40만원대로 저렴하다. 이 가격은 2년 약정으로 10만원대의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 지원금을 적용하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은 월 4000원 수준이다. 또 5만원대의 요금제를 선택하게 될 경우, 실제 단말기 가격은 월 1만원 수준이다.

소비자단말기는 요금제와 함께 판매된다. 때문에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부는 긴밀하게 엮여 있다. 과거 매달 기본료가 얼마 이상이면 휴대폰은 그냥 준다는 식의 '공짜폰'을 판매했는데 단말기 가격이 하향 평준화됨에 따라 예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3만원의 보조금으로도 공짜폰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보다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실시간 고객데이터 분석 솔루션 출시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선봬

SK텔레콤은 기업의 고객 마케팅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을 1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실시간 분석해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다.

솔루션을 구축하는 기업은 고객 개개인이 어떤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지 파악한 후 맞춤화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구매 의향이 없더라도 가망고객을 만들 수 있는 활동도 가능하다.

지원하는 기능은 ▲고객 데이터 통합 ▲고객 분석·세분화 ▲캠페인 설계·시행 ▲마케팅 콘텐츠 관리 등이다.

고객 데이터 통합 기능은 POS(Point of Sales),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고객 소통 채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 경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다. 고객 분석·세분화 기능을 통해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타깃 고객 선정이 가능하다.

허일규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장은 "최근 기업에서는 고객 개개인에 맞춤화된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지와 체험 후 구매와 사용에 이르는 구매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지원해 사용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하루 1만원에 日서 무제한 통화하세요"

KT 'VoLTE 로밍 무제한'

KT는 하루 1만원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음성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VoLTE 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망으로 음성통화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VoLTE 로밍 무제한은 일본 현지에서 받는 모든 수신통화와 일본에서 한국번호로 발신한 음성통화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며, 요금은 24시간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VoLTE 로밍 기술을 적용한 휴대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10월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5, 삼성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LG V10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순차적인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상 단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VoLTE 로밍 무제한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장 전무는 "국내 1위 로밍 사업자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맞춰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KT모델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VoLTE 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LG전자·화학,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힘 보태

LG전자와 LG화학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불어 넣고 있다.

양사는 13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이충학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박준성 LG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 사회적기업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LG소셜펀드(LG Social Fund)' 공개경연대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2010년 LG전자와 LG화학이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체결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약(MOU)의 일환이다.

LG전자와 LG화학은 2011년부터 사업 내용은 우수하지만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삼성 사장단, 미래 금융혁명 대비 열공

'디지털 금융' 강의 경청

삼성 사장단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삼성 사장단은 14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금융혁명-디지털 화폐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강의를 경청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예로 들며 "디지털 머니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의 판이 완전히 바뀐다. 아날로그 은행은 결국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 교수는 "앞으로 디지털 은행 시대에는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하는 사람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용평가방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은행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신용도 평가한 뒤 대출한도를 결정했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는 물론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빅테이터까지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금융권력의 이동을 전망했다. 인 교수는 "지금은 북한이나 테러단체들의 계좌정보를 미국이 들여다보며 통제하고 있지만, 디지털 금융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다"며 "금융주권이 중앙통제 방식에서 지방분권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연을 들은 삼성 사장단은 디지털 금융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금융계열사 사장들은 강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진 기자 hjc@

국내 건설사, 5조원대 쿠웨이트 정유공장 수주

현대·대우·SK건설 등 5곳 알주르 프로젝트 계약 일일 61만5000배럴 생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중공업이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로부터 46억달러 규모의 알주르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NRP)를 수주했다.

이들 5개사들은 13일 쿠웨이트 KNPC본사에서 각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NPR프로젝트는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남쪽으로 90㎞떨어진 알주르 지역에 초대형 정유공장을 짓는 공사다. 총 사업비는 140억 달러 (약 16조156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공장은 하루에 61만5000배럴의 저유황을 생산하게 된다.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오른쪽)이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수주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우건설

KNPC는 이 프로젝트를 총 5개 패키지로 나눠 발주했다. 이중 국내 건설업계가 수주한 금액은 46억 달러(약 5조3084억원)다.

1번 패키지는 한화건설, 2·3번 패키지는 대우건설이 현대중공업 등과 공동사업체(joint venture)를 구성해 수주했다. 5번 패키지는 SK건설과 현대건설이 따냈다.

한화건설은 스페인의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TR), 중국의 시노펙(SEG)과 컨소시엄을 이뤄 1번 패키지를 수주했다. 수주액은 42억3000만달러(약 4조8814억원)다. 한화건설의 지분은 10%로 4억2300만달러(약 4881억4200만원)다. 1번 패키지는 원유 정제를 위한 첫 과정인 상압 증류·수첨탈황 시설 건설 공사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2·3번 패키지 규모는 57억6000만달러(약 6조6470억원)다. 대우건설은 현대중공업, 플루어와 EPC(설계·구매·시공)을 공동수행한다. 대우건설 지분은 약 20억2000만 달러(약 2조3222억원)규모로 전체의 35%에 이른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41~45개월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식이다.

SK건설은 현대건설, 이탈리아 사이펨과 공동사업체(joint venture)를 구성해 수주했다. 수주한 5번 패키지는 15억달러(약 1조7500억원)규모의 해상유류 출하시설 공사다.

공사금액은 SK건설이 지분의 30%인 4억5000만 달러(약 5250억원), 현대건설이 40%인 6억 달러(약 7000억원), 사이펨이 30%인 4억5000달러(약 5250억원)다. SK건설은 해저공사를, 현대건설은 해상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45개월, 2019년 준공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삼성·LG, 첨단 솔루션·혁신제품 공개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 다양한 프리미엄 체험존 주목

최첨단 전자·정보기술(IT)의 현재와 미래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이 1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다.

1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23개국 800여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첨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과 첨단 솔루션을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전시회에 SUHD TV, 무선 360오디오, 기어 S2, 버블샷 애드워시 등의 글로벌 빅 히트작을 포함해 TV부터 세탁기에 이르는 풀 라인업을 전시한다. TV 부문에서는 88인치와 78인치형의 SUHD TV와 82S9W SUHD TV를 전시하고 360도 전 방향으로 균일하게 고음질의 음향을 내는 무선 360 오디오 신제품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모니터인 SE370, 눈에 편안한 커브드 모니터와 전문가용 고해상도 UHD 모니터도 관람객을 맞는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전자의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모델들이 올 하반기 프리미엄 전략스마트폰 V10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S6 엣지플러스,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삼성페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기어 S2 등을 통해 최신 모바일 기술을 공개했다. 생활가전 전시 부스에서는 '버블샷 애드워시' 드럼세탁기와 '셰프컬렉션' 냉장고, '2015 KES 혁신상'의 '베스트 신제품'상을 수상한 로봇청소기 '파워봇' 등이 성능을 자랑한다.

LG전자는 혁신제품 공개와 함께 관람객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LG전자는 편리한 영상 편집 기능, 광각 셀피 기능 등을 경험할 수 있는 LG V10 체험 공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자유롭게 인화하며 제품을 사용해보는 포켓포토 체험 공간 등을 통해 관람객이 전시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부스 입구에는 올레드 갤러리를 마련해 울트라 올레드 TV로 국내 유명 문화재 영상, 세계적 예술가들의 미디어아트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올레드 암실(暗室)에서는 해가 달에 가려지는 일식(日蝕)의 어두워지는 하늘을 울트라 올레드 TV로 표현했다.

또 초경량 노트북 그램 시리즈와 지난 7월 말 국내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롬 트윈워시를 비롯해 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코드제로 싸이킹 청소기 등 생활가전 제품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ysw@

조선 3사, 해양플랜트 표준화 추진

현대重·삼성重·대우조선해양 자재·설계·절차 3가지 분야

국내 조선 '빅3'가 발주처의 요구와 설계 등이 제각각이어서 납기를 제때 못맞추는 바람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해 온 해양플랜트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14일 미국 휴스턴에서 미국선급협회 ABS와 '해양플랜트 표준화 추진 착수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조선 3사와 ABS 외에 코노코필립스 등 세계 오일메이저와 테크닙, 머스탱 등 해양전문엔지니어링회사도 참여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플랜트의 자재, 설계, 업무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조선 3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노르웨이·독일 선급협회와도 해양플랜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플랜트 분야는 국제 표준이 없어 발주처와 프로젝트별로 요구 자재의 사양과 설계가 모두 달랐고 설계·생산·품질 관리 절차도 상이했다.

이는 소요 자재의 종류를 과도하게 늘려 구매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재 조달 및 관리를 어렵게 했으며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절차를 수립해야 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양플랜트 표준화는 ▲ 설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재 사양을 단순화하는 자재 표준화 ▲ 발주처와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외주 제작품의 설계를 통일하는 설계 표준화 ▲ 프로젝트 관리 업무 및 설계, 생산, 품질, 안전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절차 표준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조선 3사는 향후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양플랜트의 국제표준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전자

타이젠 스마트폰 'Z3'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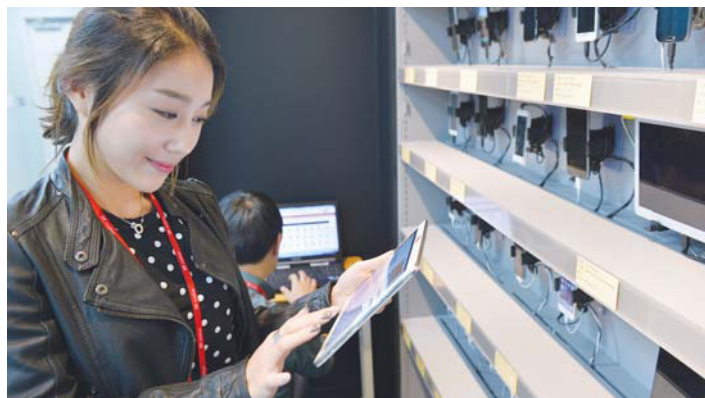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타이젠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놓고 세몰이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4일(현지시간) 인도 구르가온에서 타이젠 기반 스마트폰 신제품 '삼성 Z3'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올 초 선보인 '삼성 Z1'에 이은 두 번째 타이젠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기어 S2'를 비롯해 타이젠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도 잇따라 선보이는 등 타이젠 생태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 Z3는 5.0형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후면 800만 화소, 전면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해 성능을 강화했다. '자동 셀피' '뷰티 페이스' '와이드 셀피' 등 다양한 전면 카메라 기능도 지원한다.

특히 삼성 Z3는 소비자들이 현지의 다양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기능을 겸비했다.

인도 시장에 특화된 '마이 갤럭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 패션, 영화, 여행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분야의 현지 특가 판매 정보, 온라인 쇼핑 쿠폰 등을 제공한다. 또 인기 음악 서비스인 '믹스 라디오'를 통해 13가지 장르의 인도 음악 등 3500만곡 이상의 음악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조한진 기자 hic@

SK주식회사 C&C, 온라인 기반 원격 모바일 테스트 센터 구축

SK주식회사 C&C 통신사업본부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의 원격 모바일 테스트 센터를 점검 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는 14일 경기도 판교 SK주식회사 사옥에 '온라인 기반의 원격 모바일 테스트 센터'를 구축했다고 이날 밝혔다. /SK주식회사 C&C

구본무 LG 회장, 가우크 獨대통령에 세일즈 외교

에너지·車 사업 등 獨 경협 확대 발판 마련

첨단기술 직접 안내

구본무 LG 회장이 14일 국빈 방한기간 중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에게 LG의 첨단·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직접 안내했다.

이날 구 회장은 LG의 디스플레이, 친환경 에너지·자동차 부품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안내했고 가우크 대통령은 각 제품 설명을 듣고 이를 세심하게 살펴봤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내에는 ▲대형 곡면 올레드 TV, 투명 디스플레이 등 첨단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광 모듈,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모듈, 가정용 ESS, 에너지 자립섬 솔루션,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제품 및 기술 ▲전기차용 모터, 인버터, 배터리,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자동차 부품이 전시됐다.

구본무 LG 회장(왼쪽)이 14일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한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독일 대통령(오른쪽)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 회장은 가우크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상호 발전과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 회장은 LCD 세계 1등을 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의 디스플레이 사업을 소개했다.

또 고효율 태양광 셀, ESS, 전기차 배터리 등 LG의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역량을 소개하며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LG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가우크 대통령의 LG 방문에는 다비드 길 독일 대통령실 차관, 마티아스 마흐니히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리젤로레 취루스 독일 대통령실 대사, 요하네스 쇼이베 독일 대통령실 실장, 이경수 주독일 대사와 올리히 디츠 GFT 테크놀로지(금융 IT솔루션 기업) CEO, 랄프 쉘러 튀프 라인란트(세계적 기술인증 서비스기관) 이사회 멤버, 율리아 슈니츨러 슈트라스부르거 필터(필터장비 기업) 고위 임원을 비롯한 독일 경제사절단 일행 등 50여명이 동행했다.

LG에서는 구 회장을 비롯해, 안승권 LG전자 CTO(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이우종 LG전자 VC사업본부장(사장), 하현회 ㈜LG 사장, 여상덕 LG디스플레이 OLED사업부장(사장), 이상봉 LG전자 에너지사업센터장(부사장) 등이 가우크 대통령 일행을 환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4일 인천시 운서동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뉴 7시리즈 출시 행사에 (오른쪽부터)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과 이안 로버슨 BMW그룹 세일즈&마케팅 사장이 참석했다. /BMW

BMW 6세대 뉴 7시리즈 한국상륙

사전예약 천대 돌파 "성공 자신"

BMW가 6세대 뉴 7시리즈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성공을 자신했다. 출시 전부터 예약 판매가 1000대를 넘으며 인기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14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뉴 7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

김 대표는 "갖가지 첨단 사용을 적용한 뉴 7시리즈에 국내 소비자들은 환호할 것"이라며 "사전 예약 판매가 1000여대에 이를 정도로 출시 전부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BMW에 따르면 풀 체인지 된 6세대 뉴 7시리즈는 모던 럭셔리를 표현한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카본 코어를 활용한 경량 설계, 5세대와 비교해 더욱 커진 외관, 터치 디스플레이와 제스처 콘트롤, 레이저라이트 등의 신기술과 함께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사양을 적용했다.

카본 코어 차체 구조를 통해 이전 세대와 비교해 무게를 최대 130kg까지 줄였다. 이를 통해 탑승공간의 강도와 강성, 승객의 안전성과 함께 연료 효율까지 크게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카본 코어 차체는 BMW i 차량 개발에서부터 이어져온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BMW 그룹은 탄소 섬유를 양산차 생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적 경량화 디자인으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더욱 낮아졌고, 차축 간의 무게 배분은 50:50으로 균형을 이루게 됐다.

뉴 7시리즈에는 BMW 그룹의 차세대 V8 가솔린 엔진과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여기에 새로운 스텝트로닉 8단 자동변속기를 함께 조합했다. 국내 출시 모델의 경우 모든 모델에 BMW xDrive 인텔리전트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뉴 730d xDrive와 730Ld xDrive는 3.0리터 직렬 6기통 트윈파워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 출력은 265마력, 최대 토크 63.3kg·m의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100kg/h까지는 뉴 730d xDrive가 5.8초, 뉴 730Ld xDrive가 5.9초 걸린다.

/이정필 기자 roman@

날렵한 실루엣·묵직한 보디… 고속주행 떨림 '제로'

시승기

스포츠세단 닛산 맥시마

편의·안전 풀옵션 적용
합리적 가격 경쟁력 갖춰

스포츠 세단 닛산 맥시마는 'Maximum'의 어원에서 나온 이름답게 최고의 성능과 디자인을 뽐낸다.

14일 최고급 트림인 8세대 맥시마 플래티넘을 몰고 인천 하얏트 호텔 일대 60km를 달려봤다.

차의 전면에는 'V' 모양의 그릴이 자리했고 후면은 부메랑 테일램프가 장착됐다. 전체적인 외관은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이다. 헤드라이트와 리어라이트는 LED(발광다이오드)가 탑재됐다. 리어라이트의 브레이크등과 방향지시등 색이 붉은색으로 같아 주행 중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웠다.

또 실내에서는 센터페시아 부분

이 다소 공간을 많이 차지해 동승석에 앉으면 무릎이 센터페시아에 닿았다. 다소 공간이 좁았다. 뒷좌석은 180㎝ 가량의 성인 남성 두명이 타도 여유로운 편이었다.

맥시마는 전자식파킹브레이크 대신 풋 브레이크가 탑재됐다. 액셀을 밟는 대로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갔다. 100km/h 이상 고속 중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밀리지 않고 제동력을 발휘했다. 맥시마에는 차세대 엑스트로닉 CVT 변속기가 설치됐다.

정승민 한국닛산 프로덕트담당 과장은 "엑스트로닉 CVT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하고 곡선구간 탈출성능을 극대화 해 준다"며 "전륜에 장착된 독립식 서스펜션은 승차감까지 높여준다"고 말했다.

고속구간에서는 주행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놓고 달려봤다. 엔진의 소리는 더 커지고 차의 반응속도가 높아졌다. 정지 후 액셀을 끝까지 밟자 차가 순식간에 100km/h에 도달했다. 200km/h가 넘는 속도에서도 도로에 밀착한 느낌이 안정감을 줬다.

맥시마는 3.5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최고출력 303마력, 최대토크 36.1kg·m의 힘을 낸다. 고속에서 소음도 크지 않았다. 우선 엔진에 쓰이는 부품 61%가 새롭게 설계돼 진동·소음을 줄였다. 또한 전면·앞좌석 유리에 방음 처리가 됐다. 아울러 액티브노이즈캔슬레이션(ANC)까지 탑재돼 소음을 최대한 감소시켰다.

60km 시승 후 나온 연비는 8km/ℓ였다. 맥시마의 공인연비는 9.8km/ℓ다. 맥시마 플래티넘의 가격은 4370만원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현대·기아차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

현대·기아자동차는 14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2015 R&D(연구개발)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협력사 신기술 전시 ▲기술 교류 세미나 ▲경쟁차량 비교 전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은 협력사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각종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진행되는 행사다.

협력사 신기술 전시, 최신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술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R&D 협력사 테크데이'와 현대·기아차는 물론 전세계 경쟁업체들의 완성차를 전시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 'R&D 모터쇼'로 구성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R&D 협력사 테크 데이에서는 1·2차 협력사 35개사가 샤시·의장·차체·전자·파워트레인·환경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한 22건의 세계 최초 신기술, 21건의 국내 최초 신기술, 2건의 현대·기아차 최초 신기술 등 총 45건의 신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에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신기술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2건이다. 또 14건의 차체 분야 신기술도 전시됐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R&D 협력사 테크 데이에서 신기술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를 통해 협력사간 신기술 개발 정보와 개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기 기자

면세점 추진 '신용' 악재… 재무개선 과제

두산, 사업부문 매각 등 자금조달 나서

두산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속력을 올리는 가운데 신용등급 강등이란 뜻밖의 악재를 만났다. 두산은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으나 계열사 주가가 연일 하락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3.13%(3500원) 떨어진 10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두산은 신용등급 강등에도 전날보다 2.28% 오름세로 마감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전날 2.93% 내린데 이어 이날 6.18%(450원) 급락하며 6830원에 장을 마쳤다. 두산건설도 2.51%(200원) 하락해 전날(-2.21%)에 이어 약세를 지속했다. 두산중공업은 6.33%(1450원) 하락해 계열사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면세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신규 면세점 사업 평가 기준 가운데 '신용등급 적정성'이 포함돼 있었고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따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의 신용등급이 각각 A와 A-인 점이 두산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12일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A-(안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두산건설은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내렸다.

두산과 두산중공업은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부정적' 등급 전망은 재무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말에는 나이스신용평가가 두산인프라코어(A→BBB+)와 두산건설(BBB→BBB-)에 대해 등급을 조정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그동안의 자산 매각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이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면서 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산과 두산중공업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핵심 계열사 부진이 지주사와 다른 계열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평가사 3곳 가운데 2곳이 등급을 강등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뒤 이 회사의 지분 일부를 재무적 투자자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부채가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나선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사업부문의 지분 49%를 팔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2016년 이익개선 가능성을 지켜보라고 권하고 있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작기계 지분 매각으로 3000억원에서 4000억원 내외의 현금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투자자 간담회에서 인력구조조정, 고정비절감 등을 통해 2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밝힌 바 있어 내년부터 이익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공작기계 부문은 지난해 매출 1조2000억원과 영업이익 1432억원을 거둔 '돈 되는' 사업부"라며 "지분 49%를 매각하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물적분할과 지분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연말 차입금과 부채비율 축소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제12차 금융개혁회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투자사, 자기자본 100% 기업대출 가능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3년에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차기태 기자

삼성자산운용-美 캐피탈그룹 전략적 제휴

'한국형 은퇴·퇴직상품' 공동개발 추진

주식형 펀드 역량 강화 연령대별 상품 선뵐 것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캐피탈그룹(Capital Group)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은퇴와 퇴직 상품의 공동개발에 나선다.

캐피탈그룹은 삼성자산운용뿐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들과 장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와 티모시 아모르 미국 캐피탈그룹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은퇴 및 자산배분 상품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액티브주식운용위원회, 퇴직연금위원회 상품전략위원회, 판매채널지원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해 캐피탈그룹의 상품 개발 및 운용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방침이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한국형 은퇴·퇴직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주식형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연령대별로 투자 자산을 차별화한 한국형 연령대별 동적 연금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또 "수탁고를 현재 200조원 수준에서 를 2020년 400조원으로 늘리고 1등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를 홍콩과 중국 등 해외에 적극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르 캐피탈그룹 회장도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은퇴와 자산관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며 "한국 최고의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른 계열사까지 최대한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우수한 성장 전망을 갖춘 기업이 많아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수준과 가격대를 점검하며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좋은 종목을 발굴해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31년에 설립된 캐피탈 그룹은 전세계에서 1조4천억 달러의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본사를 포함해 런던, 시드니, 도쿄 등 세계 26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다. /차기태 기자 folium@

"부족한 노후자금, '농지연금'으로 보태자"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을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으로도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는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준비 과정을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농지를 활용한 노후대비법을 14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역모기지 방식의 연금이다. 지난 2011년 도입돼 5년 만에 누적가입건수 5000명, 누적지급금액 1034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짓느라 마땅한 노후 준비를 못한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농지연금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위탁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과 고령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을 이양해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 등 농지를 활용한 노후준비 방법도 소개됐다. /김보배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보장정신 실현

| 인터뷰 | 유 석 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지난 13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충북 제천시 덕산 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달빛 음악회 무대가 설치됐다. E&I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이 가을밤 신나는 음악회의 개막을 알렸다. 곧이어 비눗방울 아저씨 뒤를 졸졸 따라 무대에 오른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동요솜씨를 뽐냈다. 돌봄센터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개똥벌레'를 함께 불렀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직접 모국의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모국 동요를 관객에 전했다.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자 300여명의 박수와 환호성 소리는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까지 닿을 듯 울려 퍼졌다. 이날 음악회의 중심에는 유석쟁(61)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가 있다. 국내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봉사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메트로신문이 유 전무를 만나 생보재단과 그의 봉사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제천에서 소외아동 대상 음악회를 열었다.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

"제천에는 어린이집 건립이 어려워 대체성격인 2개의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최한 '산골마을 달빛음악회(찾아가는 가족콘서트)'는 돌봄센터의 아동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박한 음악회로, 농·산·어촌 보육 사각지대의 아동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자리다. 이날 음악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동요합창,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모국 동요공연 등 지역주민이 직접 출연해 모두가 어우러진 자리였다."

– 재단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우리 재단은 생명보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의미하는 생애보장정신을 지향해 영유아 보육지원에서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까

(왼쪽부터) 유석쟁 전무와 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 13일 충북 제천시 덕산초중학교에서 열린 산골마을 달빛 음악회에서 지역주민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산골마을 달빛음악회에서 학부모들이 합창을 하는 모습.

산골마을 달빛 음악회에서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국공립 '생명숲어린이집' 건립
아동학대 사건때 총리 견학와

경증치매·희귀질환자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희망 손길 뻗어

내년부터 자살예방사업 확대

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7대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 '생명숲어린이집'을 건립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생명숲어린이집을 둘러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위험임산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돕는 사업이다. 70여개 종합병원에서 선정한 환자들을 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치료비와 재활비, 학습보조기기 등을 지원한다. '자살예방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마포대교 등 전국 16곳에 생명의 전화를 설치해 현재까지 3600여명의 생명을 지켰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경증치매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외 '사회적의인 지원사업'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한 경찰이나 소방관 등 사회적 의인에 시상금을 수여해 격려하고,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통해 바쁜 업무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데, 자살예방사업에 특히 눈길이 간다. 자살예방을 위해 벌이는 사업이 또 있나.

"농어촌 지역에서 농약 음독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예방하고자 농약안전보관함을 만들어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보관함이 지원된 마을에서는 지원 이후 단 한건의 음독자살이 발생하지 않아 지자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재단의 7대 목적사업은 임기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내년부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이나 치매노인을 위한 사업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경력>	
1973 동대문상고 졸업	동대문상고(現청원고)총동문회 사무총장
1975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건국대 행정학과 사무총장
1975~1982 초등학교 교사	고려대 AMP 총교우회 사무총장
1979 건국대학교 졸업	전경련 국제경영원 글로벌CEO과정 총동문회 사무총장
1982~2005 교보생명 지점장, 지역본부장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CEO과정 총동문회 사무총장
2002~2006 서강대·고려대·전경련 CEO과정 수료	(사)한국재능기부협회 부이사장
2005~2009 교보보험심사 대표이사	(사)한국씨니어연합 이사
	(사)한국창조경영인협회 부회장
<주요 직함>	미래지식CEO포럼 주임교수
진주류씨 북부령공 경력공파종친회 회장	조선문화예술CEO과정 주임교수
	한양대학교대학원CEO과정 주임교수

– '자수성가(自手成家)형 CEO 봉사전문가'로 불린다. 우선 자수성가란 칭호가 붙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중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서울의 형과 형수 밑에서 11년간 살았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대신 상고에 진학,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생활했다. 취업할 때가 되니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에 궁리 끝에 등록금이 싼 2년제 교육대에 들어갔다. 1975년 졸업 이후 교사 생활을 하면서 4년제인 건국대 행정학과에 입학,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졸업했다. 교사도 적성에 맞았지만 좀 더 넓은 곳에서 꿈을 펼쳐보고자 교보생명에 입사했다.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주경야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해서 자수성가란 말을 붙여준 것 같다.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 봉사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

"봉사란 단어를 떠올리기 전부터 항상 나누는 삶에 대한 뜻을 품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 초·중·고교 동창회 총무를 맡으면서부터 봉사에 관심이 커졌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봉사를 해왔나.

"초등학교 총무를 40년간 하다 지난해 넘겨줬고, 중학교 총무는 41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와 한예종, 고대 총동문회 사무총장이나 한국재능기부협회 부이사장, 창조경영인협회 부회장 등에까지 기회가 닿았다. 모두 무보수로, 당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에 관심이 많아 노숙인 급식봉사, 장애인 결혼식 기획, 재소자 위문 등 그늘진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크게 느꼈다."

– 생보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교보생명 퇴직 이후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한 끝에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공헌하면서 살자'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그러던 중 재단에는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들어오게 됐다.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해보았으나 생보재단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는 처음 접했다. 19개 생명보험사가 좋은 뜻으로 만든 훌륭한 재단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돼 더없이 영광이고 보람이다."

– 오랜 시간 봉사를 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언젠가 난치질환 아동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난치성 자녀를 둔 학부모가 사례발표를 하는데 치료비 부담이나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같은 부모 입장으로 들으며 눈물이 그치질 않아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눈이 부었다. 학습용 기기를 전달하기 위해 장애 청소년들을 만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만나는 자리에선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좋은 일하러 다니면서 많이 울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전국 대학생들이 뽑은 선호도 1위 브랜드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브랜드의 주인공들이 선택한 1위 브랜드!

300만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선택한 파워 브랜드,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KB국민은행	삼성전자 SAMSUNG	posco	DOOSAN 두산중공업
GS칼텍스	posco 포스코건설	CJ	SAMSUNG 삼성디스플레이
한국관광공사	NPS 국민연금	세브란스병원 SEVERANCE HOSPITAL	한겨레 HANI.CO.KR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스포츠서울	metro	사람중심 취업사이트 saramin
albamon	KB국민카드	KakaoPay	모닝글로리
RAISON BLUE	cass	종로유학원 CHONGRO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E	PAGODA어학원
DAEMYUNG RESORT	Candy Crush SODA	KYOBO 교보문고	

최우수기업 대상(기업부문) KB국민은행(은행) | 삼성전자(전자) | 포스코(철강) | 두산중공업(중공업) | 포스코건설(건설) | GS칼텍스(정유) | CJ(식품) | 삼성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 한국관광공사(공기업) | 국민연금공단(공기업) | 세브란스병원(대학병원) **최우수언론 대상(언론부문)** 한겨레신문(종합일간지) | 매일경제(경제지) | 스포츠서울(스포츠신문) | 메트로(무료일간지) **최우수상품 대상(상품부문)** 사람인(취업사이트) | 알바몬(아르바이트사이트) | 카카오페이(모바일간편결제) | KB국민카드(체크카드) | 모닝글로리(문구팬시) | 레종(담배) | 카스(맥주) | PAGODA어학원(종합어학원) | 종로유학원(유학원) | 대명리조트(리조트) | 캔디크러쉬소다(모바일게임) | 교보문고(인터넷서점)

상가 투자 '브랜드'로 옥석 가린다

부도 위험 적고 배후수요 탄탄
공덕 파크자이, 최고 297대 1 등
대형사 잇단 완판에 물량 늘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지만 불분명한 분양업체와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있으며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쳐 투자리스크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계약과 분양, 입점 등 투자 안정성을 갖춘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는 수익률이 높은 대신 위험도가 높다. 또 상가가 위치한 입지와 상권, 금융혜택 등 찾아봐야 할 요소도 복잡한 만큼 알짜 상가를 선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상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브랜드 상가는 일반 상가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형사들이 대거 할인분양에 동참, 몸값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고 있다. 또한 부도 위험이 적은 것은 물론 투자 안정성까지 갖춰 경쟁력을 갖췄다. 더불어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배후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다.

경기도 용인 기흥역세권 힐스테이트 기흥 단지 내 상가 분양이 조기 마감된 데 이어 '공덕 파크자이' 상가 역시 57실 공개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약 68대 1, 최고 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대형사들은 최근 브랜드 상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91번지 일원에 용산 푸르지오 써밋 주상복합단지 내 상업시설인 용산 써밋 스퀘어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118개 점포(예정)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1·4호선과 경춘선(ITX),경의중앙선, KTX의 복합역사인 용산역 역세권인 데다 한강대로, 강변북로를 통한 강남이나 도심권 이동도 편리해 폭넓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뒤에 있는 아이파크몰에 세계 최대 규모의 HDC 신라면세점이 올해 12월 오픈될 예정이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에 힘입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미사 푸르지오 시티 8-2·3블록은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 10-2블록은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로 지어지며 모두 지상 1층~3층이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52~57%대의 높은 전용률을 확보했다.

미사 푸르지오 시티는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중심상업지역에 있다. 미사역과 도보 2분 거리로 일대 상권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역삼자이 상가를 분양한다. 역삼자이는 개나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또 테헤란로와 인접하고 언주로 대로변이 가깝다. 이달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이 상가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 55개 점포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25개 점포가 일반에 분양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광교 택지지구 D3블록에 상업시설 70호실을 분양한다.

상가 1층은 수변테라스 상가로 호수조망권을 확보해 브런치카페, 와인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세련된 상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2층 상가는 모두 호수 조망권이 보이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중흥토건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C2블록 복합단지 광교 중흥S-클래스에 상업시설인 광교 어뮤즈스퀘어상가를 공급한다. 광교 중흥S-클래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이뤄진 복합단지다. '광교 어뮤즈스퀘어' 는 전용 3만9660㎡ 613실로 구성됐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용산푸르지오 써밋 스퀘어 조감도. /대우건설

수도권 브랜드 상가 분양예정 물량

위치	단지명	점포수	분양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91번지	용산 써밋 스퀘어	118	10월
하남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 8-2·3블록	미사 푸르지오 시티	110	11월
하남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 10-2블록		64	11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1-1번지 일대	역삼 자이 상가	55	10월
광교 택지지구 D3블록	힐스테이트 광교 D3상가	70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C2블록	광교 중흥 S클래스 어뮤즈스퀘어	613	10월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각 사

건영, 뉴스테이·해외사업 본격 추진

4월 출범후 7000억원 수주
"10년내 건설사 20위권 도약"

지난 4월 인수합병으로 새 출발을 한 ㈜건영이 5개월 만에 700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해외건설 등 신규 사업 참여도 본격 추진한다.

건영 이형수 회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현재까지 자체사업 2880억원, 도급사업 4300억원 등 총 719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며 "이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계획한 올 한해 수주목표 4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M&A 이후 건영의 재도약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신규 수주를 이어가면서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사업약정이 체결돼 있어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건영은 이달 16일 충북혁신도시내에 양우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아모리움내안애' 아파트 842가구를 분양한다.

건영의 자체 브랜드 '아모리움'을 살린 첫 프로젝트다.

건영은 이와 함께 법정관리로 중단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지사와 베트남 지사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등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형수 회장이 스리랑카 정부 측과 만나 주택건설과 풍력발전 사업 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영은 최근 신사업 진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종합부동산서비스 'TRES (Total Real Estate Service)'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과 지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3천가구 정도를 공급하고 주택임대관리와 건물관리업 등에 본격 참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자체 자금을 활용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건설사 3곳중 한 곳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있다면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수주한 신규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 3000~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연말에는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 이라며 "앞으로 10년내 시공능력평가 20위권내 건설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량, 한달 새 '반토막'

2만698가구… 10월比 41.7%↓
물량 감소에 전세난 악화 우려

11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14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2만698가구로 집계됐다. 10월과 비교했을 때 41.7%(1만4813가구)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2%(1만1804가구) 감소한 5764가구, 지방은 16.8%(3009가구) 줄어든 1만4934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푸르지오 940가구와 송파구 장지동 위례아이파크 1차 400가구 등 1506가구가 공급된다.

아현역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20층 16개동 전용면적 34~109㎡로 구성됐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안산공원과 효창공원, 남산공원 등이 있다. 전용 59㎡ 매매는 5억~5억8000만원, 전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이다.

위례아이파크 1차는 지하 3층~지상 24층 6개동 규모다. 전용 87~128㎡로 구성된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복정역이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송례중과 거원중교 등이 주변에 있다. 전용 87㎡ 매매는 6억9000만~7억원, 전세는 5억~5억50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창곡동 위례힐스테이트 621가구, 성남시 백현동 판교알파리움 1·2단지 931가구 등 4258가구가 공급된다.

위례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14층 14개동으로 구성된다. 위례신도시 A2-12블록에 들어서며 인근에 8호선 복정역과 신성역이 있다. 전용 110㎡ 매매는 8억3000만~8억5000만원, 전세는 5억3000만~5억7000만원대다.

판교알파리움은 서희·두산·GS·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5개동,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규모다. 판교역과 판교IC가 가깝고 판교 제8호공원과 화랑공원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좋다. 전용 96㎡ 매매는 9억~9억5000만원, 전세는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방엔 1만4934가구가 공급된다.

부산에서는 동래구 명륜동 명륜아이파크2차 1·2단지 등 2744가구, 대구에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 670가구 등 11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명륜아이파크2차는 명륜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30층 18개동, 2단지는 지하 4층~지상 30층 5개동 규모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가깝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다. 전용 84㎡ 매매는 4억3000만~4억9000만원, 전세는 3억5000만~3억6000만원대다.

대구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은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규모다. 단지 주변에 대구비슬초등학교와 포산중학교가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계명대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등이 가깝다. 전용 84㎡ 매매는 2억5670만~2억6170만원, 전세는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 지역별 입주물량은 ▲경남 3752가구 ▲충남 1901가구 ▲강원 1164가구 ▲경북1054가구 ▲충북 968가구 ▲전남 874가구 ▲전북 763가구) ▲광주 309가구 ▲울산 288가구 순이다. /박상길 기자

‘몸값 3조원’ 코웨이, 누구 품에?

CJ그룹 오늘 예비입찰 참여
필립스 등 외국계 매각 가능성
높은 몸값에 ‘흥행’ 미지수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생활가전기업 코웨이 인수전이 3조원에 달하는 높은 몸값에 흥행이 부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도이치증권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하고 15일 코웨이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코웨이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코웨이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매각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코웨이가 매물로 나온 직후 SK네트웍스, 한국타이어, GS그룹, 현대백화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모두 인수 사실을 부인했다. 현재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기업은 CJ그룹이 유일하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웅진으로부터 당시 웅진코웨이 보유지분 30.9%(2382만9150주)를 1조2000여억원에 사들였다. 그간 정수기 및 생활가전 전문 업체로 소비자에게 각인된 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받으며 코웨이의 몸값은 3조원까지 치솟았다.

높은 몸값에 국내 기업들은 발을 빼는 모습이다.

업계는 CJ그룹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열사들과 코웨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코웨이가 외국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필립스는 골드만삭스가 보낸 투자안내서외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코웨이 인수전에 참여한 중국의 캉자그룹이 다시 참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캉자그룹은 당시 MBK파트너스와 적격예비후보에 포함돼 본입찰까지 경쟁하며 인수에 적극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 전문가는 “거론되는 업체들 외에 여러 기업들이 코웨이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3조원에 이르는 입찰비용을 고려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며 “MBK에서도 생각보다 부진한 흥행에 이번 매각과 관련해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젠틀맨즈 패션 테이스트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울마크 컴퍼니와 함께 하는 젠틀맨즈 패션 테이스트’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젠틀맨즈 패션 테이스트 행사는 본점, 잠실점, 분당점 등 7개 지점에서 18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구매 고객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해 1등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정장을 증정한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로 바꿔야”

시장상인·소비자 설문
방문객 수 변화 못느껴

*주 : 평일 의무휴업 지자체의 소비자(일반국민) 620명 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주말로 하는 것보다 평일로하는 것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이하 전경련)는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평일 또는 특정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상인 242명, 소비자 6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상인 69%, 소비자 81.4%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 측은 이같은 결과는 소비자 구성과 지역 특성에 따라 평일 휴업이 더 유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찬성이라고 응답한 김포중앙시장 상인은 “일요일은 사람들이 하나로마트 등 영업하는 다른 큰 마트에 갈 수 있는 시간여유가 많아 굳이 인근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평일날 퇴근 후에는 멀리 있는 마트를 갈 시간이 없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 종교적 이유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일요일에 쉬고 싶어하는 상인도 있었다.

또 일요일에 대형마트 방문객이 가장 많음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일 의무휴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소비자 행동패턴이 평일과 주말에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주말 대형마트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단순히 물품만 구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들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으로 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평일에는 소량의 생필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전통시장 대체쇼핑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포에서 맞벌이를 하는 37세 주부는 “일요일에 전통시장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우유나 계절과일 같은 생필품은 평일에 퇴근하면서 집 앞이나 시장에서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김장, 미리 준비하세요”

롯데마트
김장재료 예약 판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롯데마트 전국 매장과 롯데마트몰에서 김장재료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해 최대 시세 대비 30% 가량 저렴하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발표한 ‘주간 농수산물 거래 동향’에 따르면 배추는 공급 과잉으로 평년대비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마늘 등의 저장 가능한 김장재료는 당장에 이번 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1월 배추 가격은 10kg당 3255원으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년 동월 5199원 대비 43% 낮은 가격이다.

롯데마트는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김장 재료인 ‘절임 배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선보이는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전남 해남에서 재배한 ‘통큰 절임 배추’(20kg)을 33800원에, ‘종갓집 절임 배추’(10kg)를 208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총 준비 물량은 800톤이다.

3박스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0%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 현대인을 위한 ‘간편 김장 재료’도 시세 대비 10~20% 가량 저렴하게 예약 판매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절임 배추(6.5kg)과 김장 양념(3.5kg)으로 구성된 ‘종가집 김장 세트’(10kg)을 48500원에, 김장 양념만으로 구성된 ‘종가집 양념세트’(5.5kg)를 39800원에 판매한다.

예약 구매한 상품은 내달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령 가능하며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맞춰 무료 배송된다. /김성현 기자 minus@

11번가
라이벌 브랜드간 할인 경쟁

11번가(대표 서진우)는 생필품 브랜드 비교·할인 행사인 ‘브브(브랜드 VS브랜드) 대전’ 기획전을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기간 도안 ‘코카콜라 VS 웅진식품’, ‘피죤 VS 옥시’ 등의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브랜드 라이벌 기획전이 열린다.

각 브랜드들은 같은 품목의 제품을 걸고 할인 경쟁에 돌입한다.

코카콜라와 웅진은 ‘탄산수’를 피죤과 옥시는 세탁세제, 하기스와 보솜이는 기저귀, 남양과 매일은 분유 등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GS홈쇼핑
‘씨트립’과 손잡고 요우커 공략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은 지난 13일 서울 문래동 본사에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과 계약을 맺고 쇼핑할인서비스 ‘명점구’(Shopping Chic With Ctrip)에 다양한 중소 브랜드를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통합 ‘스마일 캐시’ 론칭

G마켓과 옥션, G9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3개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일 캐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스마일캐시는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 제도로 기존에 G마켓, G9, 옥션 등에서 사용되던 e머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용 중이던 금액은 자동으로 스마일 캐시로 전환되며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스마일캐시의 론칭으로 고객들은 한 곳에서 적립한 스마일캐시로 타 사이트 제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한섬
소아암 아동 돕기 자선 바자

현대백화점 그룹의 패션전문기업한섬(대표 김형종)은 17일 현대백화점신촌점 유플렉스문화홀에서 '소아암 아동 돕기 자선 바자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섬이 기관이나 단체에 물품을 기부한 적은 있어도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진행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바자회에서는 한섬 임직원의 개인 소장품을 비롯해 디자이너의 의류·잡화·액세서리 제작 샘플 상품 등 3000여 점이 소개된다.

CJ제일제당
푸드뱅크 선물세트 조립봉사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푸드뱅크 식품나눔 페스티벌에 참가해 '2015 푸드뱅크 희망나눔 선물세트 조립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희망나눔 선물세트 조립봉사는 CJ제일제당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오는 기부봉사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들이 생필품 선물세트를 직접 조립한 후 푸드뱅크에 기부해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선물세트 조립봉사 자원봉사를 통해 제작된 2000개를 포함해 모두 1만8000세트가 전달됐다.

CJ프레시웨어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대표 강신호)는 지난 1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2015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ESG 평가는 코스피(KOSPI) 상장회사 695개사와 코스닥(KOSDAQ) 상장회사 133개사의 2014년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장회사의 환경경영(Environment),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각 ESG 등급은 가장 우수함을 나타내는 S부터 A+, A, B+, B, C, D 순으로 총 7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CJ프레시웨이는 환경경영 부문에서 B+, 사회책임경영과 지배구조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통합 A등급이 부여됐다.

진주햄, 육가공 명가 부활 노린다

풍부한 육즙·쫄깃한 식감 '육공방' 론칭
외식사업 진출… 10년 내 매출 1조 목표

'천하장사' 소시지로 유명한 진주햄(사장 박정진·사진)이 프리미엄 브랜드 '육공방'을 앞세워 정통 명가의 부활에 나선다.

소시지와 햄 중심의 기존 사업 외에 수제맥주 제조 등 외식사업 진출을 통해 향후 10년 내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진주햄은 1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미엄 육가공 브랜드 '육공방'을 소개했다. 육공방 브랜드로 2000억원 규모 프리미엄 소시지 시장에서 연매출 500억원을 달성하고 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진주햄에 따르면 육공방은 '고기(肉)를 만드는 공방(工房)'이라는 의미다. 기계로 고기를 잘게 갈아내 만드는 기존 제조법과 달리 고기를 굵게 다져내 육즙을 풍부하게 살리는 데 주력했다. 입안에서 고기가 씹히는 맛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칼집을 내지 않아도 육즙과 식감이 풍부한 소시지를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주햄은 새 브랜드 출시와 함께 시식활동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본격화해 조기에 시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참나무로 훈연한 스모크 향의 브라운 스모크 소시지와 훈연하지 않은 정통 독일식 스노우 부어스트 소시지 등 두 종을 먼저 출시하고 점차 제품군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진주햄은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 기호식품인증을 받은 어린이간식 '천하장사 포키즈'를 출시해 어린이 전용 브랜드 확장에 나선다.

또 진주햄은 지난 2월 수제맥주 제조업체인 카브루를 인수해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수제맥주와 이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육가공제품을 한데 묶어 내년 1월 안테나샵을 오픈한다. 이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와 확대 방향을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박정진 진주햄 사장은 "육공방은 진주햄의 50년 역사와 장인 정신을 담은 제품으로 품질과 정직을 내세워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라며 "사업다각화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육가공업계 선도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모델들이 진주햄의 육가공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식품기업 진주햄은 참나무 훈연 스모크 향의 브라운 스모크 소시지와 구이용으로 적합한 정통 독일식 스노우 부어스트 소시지 등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했다. /연합뉴스

풀무원생활건강, 생활용품 영역 확대

獨 브랜드 '오라니어'와 협업
쿡웨어 딜렌부르크 4종 출시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여익현)이 지난 5월 전기레인지를 출시한 데 이어 주방용품을 출시하고 생활용품 사업을 확대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은 14일 독일 400년 전통 주방용품 브랜드 '오라니어(Oranier)'와 협업한 쿡웨어 '오라니어 딜렌부르크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라니어 딜렌부르크는 가정에서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24㎝ 양수와 전골, 20㎝ 양수, 16㎝ 편수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열 보존력과 전달력이 탁월한 구리(copper)를 제품 몸체의 모든 면에 넣은 코퍼코어 통 5중 구조로 제작돼 열이 바닥만이 아닌 몸체 전체에 고르게 전달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 5월 '건강한 생활을 선도하는 로하스 생활기업'이란 비전 선포식을 갖고 '로하스키친사업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가스레인지로 인한 주방의 공기오염과 주부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인덕션 전기레인지'와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를 출시하고 생활용품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은미 기자

'쿡웨어 오라니어 딜렌부르크' 4종. /풀무원건강생활

14일 서울 대학로 오비맥주 맥주문화체험관에서 모델들이 엄선한 초콜릿 맥아와 최고급 홉을 사용한 '프리미어 OB둔켈(premier OB Dunkel)'을 선보이고 있다. /오비맥주

"프리미어 OB둔켈 한 잔 하세요"

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가 독일 정통 흑맥주 '둔켈(Dunkel)'을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오비맥주는 지난 6월 프리미어OB의 첫 번째 브루마스터 셀렉션(Brewmaster selection)인 밀맥주 '프리미어 OB 바이젠'을 선보인데 이어 두 번째 브루마스터 셀렉션 '프리미어 OB둔켈(premier OB Dunkel)'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리미어 OB 둔켈은 엄선한 초콜릿 맥아와 최고급 홉을 사용해 흑맥주 특유의 구수한 풍미와 풍부한 향, 진한 초콜릿 색상을 지녔다. 묵직하고 쓴 맛이 강한 스타우트 에일맥주와 달리 하면발효 방식으로 제조해 목 넘김이 부드럽고 상쾌한 맛이 특징이다.

국물 없는 라면, 국물 라면 아성 넘봐

짜장라면·비빔면, 시장 주도
전체 매출 중 26.32% 차지

짜장라면, 비빔면 등 '국물 없는 라면'이 라면시장 신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14일 시장조사기관 AC닐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라면 매출은 1조27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국물 있는 라면은 73.68%, 국물없는 라면은 26.32%를 차지했다.

국물 있는 라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83% 줄어 전체 라면시장 감소를 주도한 반면 국물 없는 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9.19% 늘며 신장세를 이어갔다.

국물 없는 라면은 전체 라면 매출에서 2013년 20.93%, 2014년 23.51%, 2015년 26.3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을 해마다 높여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짜장라면(31.33%)과 비빔면(11.55%)의 매출 신장률이 두드러졌다.

짜장라면의 매출이 급증한 것은 프리미엄급 짜장라면 제품이 잇달아 출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지난 4월 3㎜ 두께의 굵은 면발과 200도 이상 고온에서 짧은 시간에 재료를 볶는 고온 쿠킹 기술로 정통 짜장의 풍미와 식감을 살린 '짜왕'을 선보였다.

짜왕의 선풍적인 인기에 지난 7월 오뚜기는 춘장과 양파를 센 불에 볶아 '불 맛'을 잘살린 '진짜장'을, 팔도는 2.5㎜두께의 면발에 양파, 감자, 돼지고기 등 큼직한 건더기가 들어 있는 액상 짜장소스의 '팔도짜장면'을 출시했다.

비빔면 시장도 시장 점유율 1위인 팔도비빔면이 올해 5월에 제품 리뉴얼을 하고 소컵, 치즈컵 등 신제품을 출시한 영향 등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유통가, 블프에 '함박웃음'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百 매출 전년比 25%
온라인쇼핑 26.7%↑

유통업계가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92개 참여업체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22개 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92개 업체 3만4000여 개 점포와 20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요일에 따라 매출 실적이 차이가 큰 유통업체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통계 기준은 10월 2~12일로 산정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곳은 모든 지점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4.7% 늘었다. 홈쇼핑과 인터넷면세점 등 11개 온라인쇼핑몰은 26.7%, 전자랜드와 하이마트 등 2개 전자제품 유통전문점은 18.7% 각각 매출이 증가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3% 올랐다. 추석 이후 대형마트 매출이 둔화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장이 쇼핑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외에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개 업체의 매출도 전년 동기대비 32.3% 늘어났으나 이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50곳과 방문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78%는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했다. 전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오른 곳도 10%에 달했다.

시장의 90% 이상은 경기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조사대상 시장 모두 행사가 다시 진행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일부 고객과 상인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대형마트의 경우 작년 추석 이후 11일간(9월 11~21일)과 비교하면 15.3%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행사가 끝나면 참여 업체 매출과 소비자 의견 등을 감안해 행사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오늘부터 '반값'

6일간 멤버십 데이 진행
환절기 필수품 50% 할인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15일부터 6일간 최대 50% 할인하는 멤버십 데이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에게 50~20% 할인 혜택을 준다.

VIP·우수 회원은 30%, 일반·신규회원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등급과 상관없이 더페이스샵 회원이라면 누구나 마스크 시트, 페이셜 미스트, 헤어케어 제품 등 환절기 필수 아이템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다.

대표 할인 품목인 '갈아 만든 마스크 시트'는 보습과 영양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붙였다 떼어내는 편리한 사용법으로 연간 2800만 장이 판매되는 베스트 아이템이다. 이 제품은 알로에, 석류, 아보카도, 꿀 등 천연 원료를 압착, 원료화해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준다.

이외에도 건조한 날씨로 푸석하고 예민해진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줘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결로 가꾸어주는 '순수보습 수분미스트' 등 페이셜 미스트 제품은 5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손상된 모발에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줘 윤기 있고 부드러운 머릿결로 관리해주는 '쥬얼 테라피 데미지케어 아르간 오일 세럼' 등 헤어케어 제품도 50% 할인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BGF리테일 민승배 사업지원실장(왼쪽 두번째)과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BGF리테일
복지재단에 'PC나눔' 전산장비 1135대 기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대표 박재구)는 사회복지법인에덴복지재단과 '사랑의 PC' 업무협약을 맺고 1135대의 전상장비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랑의 PC는 BGF리테일 내 사용하지 않는 PC를 매각 처리하지 않고 사회기관에 기증하는 나눔활동의 일환이다. 2011년 첫 시행된 후 지금까지 1598대의 기기가 기증됐다.

또 사랑의 PC는 일반적인 중고 PC기부와 달리 기증한 PC부품을 분해하고 성능 향상 처리를 하는 과정에 중증 장애인을 채용함으로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도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

크록스 '스타워즈 컬렉션' 나왔다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모델들이 '스타워즈-에피소드7 : 깨어난 포스' 개봉 기념으로 출시된 크록스 스타워즈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KT&G '토니노 람보르기니 구스토' 출시
천연발효 숙성원료로 풍미 극대화

KT&G(대표 백복인)는 파이프 담배 원료인 '카벤디쉬(Cavendish)'를 함유해 풍부한 맛을 구현한 '토니노 람보르기니 구스토(Tonino Lamborghini Gusto)'를 14일 출시했다.

카벤디쉬는 담배의 풍미를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 천연발효 방법으로 숙성시킨 파이프 담배용 원료로, 이 기법을 처음 발견한 16세기 영국의 탐험가 토마스 카벤디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토니노 람보르기니 구스토는 카벤디쉬를 10% 함유해 파이프 담배 특유의 풍부한 맛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제품 패키지는 메탈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님버스 실버(Nimbus Silver)' 색상의 홀로그램 원지를 사용했다. 토니노 람보르기니 구스토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각각 6.0mg, 0.50mg이며 가격은 갑당 4700원이다.

토니노 람보르기니 구스토. /KT&G

시계 사면 '스위스 나이프' 드려요

그로바나
내일부터 소진 때까지

스위스 시계 브랜드 그로바나의 국내 공식 수입·유통사인 코이 컴퍼니(대표 추상민)는 그로바나 시계 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제품 소진 때까지 스위스에서 생산된 '그로바나 스위스 나이프'를 증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로바나는 앞서 7월 국내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벤트는 그로바나 공식 판매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과 충청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현대아울렛 가산점, AK플라자 수원점 등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그로바나 공식 홈페이지(www.grovana.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로 91주년을 맞이하는 그로바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스위스 시계 기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스위스 정통 시계 브랜드다. 스위스 텐니켄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모든 제품이 수작업으로 조립된다.

전세계 70개국의 그로바나 판매처를 통해 2년간의 국제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PC그룹 '코리아그랜드 세일'
매일 10만개씩 7일간 70% 적립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70만명에게 70%의 혜택을 주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옥션·G9 등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에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SPC그룹 계열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해피콘 5000원권을 매일 10만개씩 7일간 판매하고, 구매금액의 70%를 이베이 통합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행사는 14일 오전 9시부터 7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아이디당 1개만 구매 가능하다.

star bag

싸이더스HQ와 재계약

배우 **이미숙**이 현 소속사 싸이더스HQ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싸이더스HQ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이미숙이 계속해서 싸이더스HQ와 인연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14일 전했다.

5개월 만에 컴백

밴드 **엔플라잉**이 오는 22일 신곡 '론리(Lonely)'로 5개월 만에 컴백한다. 가을에 어울리는 미디엄 템포의 이별 노래다. 헤어진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싱글에는 총 3곡이 수록된다.

첫 단독 콘서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예 밴드 **데이식스**(DAY6)가 오는 11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 예스24무브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동안 쌓아온 공연 내공을 마음껏 분출하겠다는 각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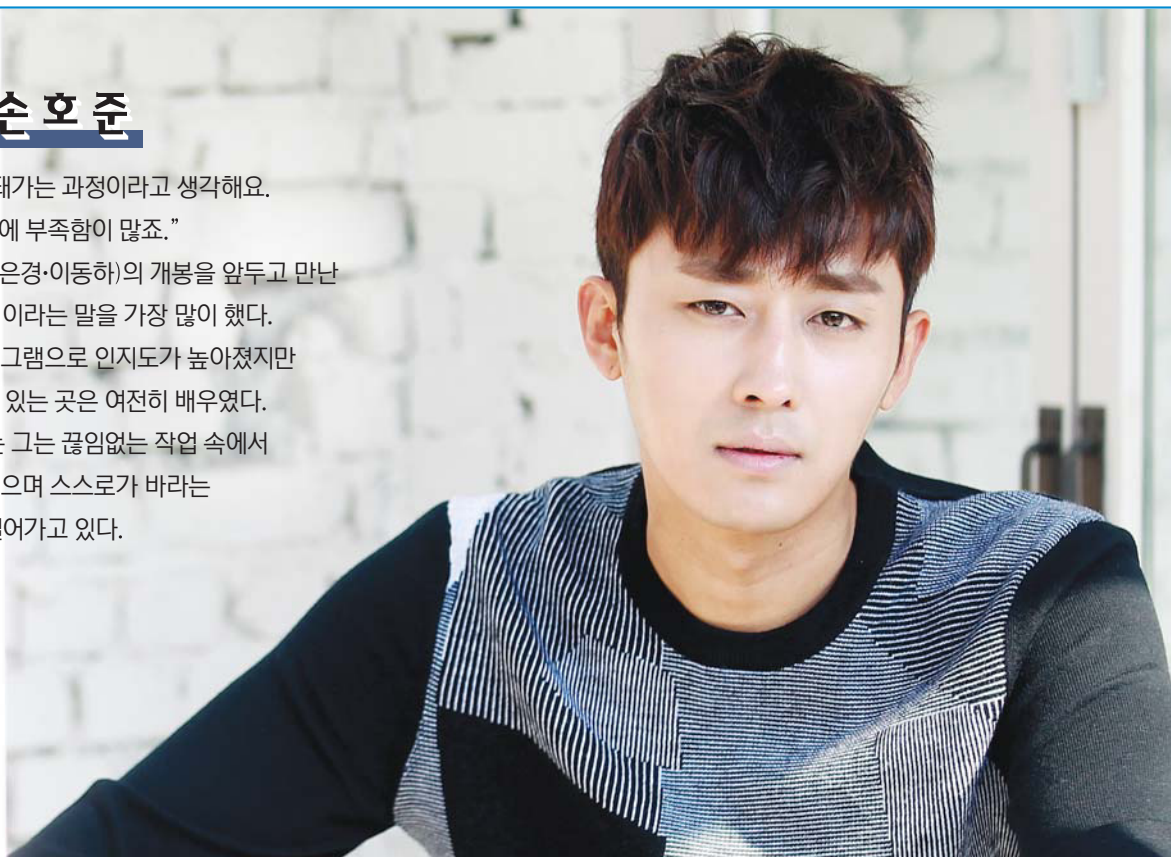
디지털싱글 발표

여성 듀오 **랄라스윗**이 디지털싱글 '신시아(Cynthia)'를 14일 정오 발표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빛에 기대 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년 만에 솔로 활동

7년 만에 솔로로 돌아온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새 미니앨범 'D'의 타이틀곡 '아임 파인(I'm Fine)'의 티저 영상을 14일 자정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앨범은 오는 21일 발매된다.

영화 '비밀' **손호준**

"저는 지금 배우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배우가 되기에 부족함이 많죠."
영화 '비밀'(감독 박은경·이동하)의 개봉을 앞두고 만난
손호준(31)은 '배움'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배우였다.
"연기가 재미있다"는 그는 끊임없는 작업 속에서
사람들과 믿음을 쌓으며 스스로가 바라는
배우가 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배움·재미·믿음 속 '배우의 꿈' 한걸음씩

'비밀'은 살인자의 딸과 그 딸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온 형사, 그리고 살인자에게 약혼자를 잃은 남자가 다시 만나면서 겪는 용서와 복수, 화해를 그린 영화다. 손호준은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약혼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남자 철웅을 연기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그리고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어촌편'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난 손호준과 비교하면 무척 신선한 변신이다.

"시나리오가 재미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다음 장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결말을 안 뒤에도 생각할 부분이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응답하라 1994'의 해태처럼 밝은 모습으로 저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전에도 어두운 역할을 연기한 적 있거든요. 이미지 변신이나 반전은 배우로서 인정받고 난 뒤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속 철웅은 속마음을 좀처럼 알 수 없는 캐릭터다. 10년 뒤 국어교사로 등장하는 그는 여전히 덜어내지 못한 약혼자의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철웅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살인자의 딸인 정현(김유정)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다. 손호준은 그런 철웅을 "약혼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이해했다. 영화 속 설정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다. 그 힘든 과정이 오히려 배움이 됐다.

죄책감·죄의식 사로잡힌 인물
무거운 감정 이해하려고 노력

아직은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
재미와 믿음으로 더 단단해져

"철웅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감독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한 신 한 신 찍을 때마다 감독님들과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죠. 아무래도 감독님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으니까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호준이 배우가 되기 위한 배움의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뜻에서다.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재미는 단지 웃음과 오락이라는 가벼운 재미만은 아니다. 어떤 이야기든 흥미가 가는 것, 그것이 손호준이 말하는 재미다. 실제로는 낯가림도 많다. 그래서 더 연기에 재미를 느낀다. "평소에는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해드려요(웃음). 하지만 연기할 때는 대본이 정해져 있잖아요. 슛 들어가면 잘 모르는 상대 배우와도 눈을 바라보며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

배우라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얻는 것은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의 믿음도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동안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과의 믿음이 없었다면 선뜻 출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배움·재미·믿음, 어쩌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손호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강동원, 전대미문의 캐릭터 변신

영화 '가려진 시간'서 아역들과 호흡

영화 '가려진 시간'(감독 엄태화)이 강동원(사진), 신은수, 이효제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 7일 크랭크인했다.

'가려진 시간'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갔다 다음날 혼자 구조된 소녀와 며칠 두 훌쩍 자란 모습으로 나타난 소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멜로다.

연출을 맡은 엄태화 감독은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3년 만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작으로 선정됐던 단편 '숨'과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제작연구과정을 통해 발표한 독립장편 '잉투기'로 주목을 받았다. '가려진 시간'은 엄태화 감독의 첫 상업장편영화다.

엄태화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는 이 작품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기존 한국영화에서는 만나기 힘들었던 신선한 설정과 치밀한 구성, 섬세한 감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소년이면서 어른인 전대미문의 특별한 캐릭터 성민과 그 상대역이자 여주인공인 수린을 연기할 10대 소녀 캐스팅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소년으로 실종됐다 며칠 만에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른 성민 역은 강동원이, 성민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소녀 수린 역에는 아역배우 신은수가 캐스팅됐다. 또한 13세 성민 역에는 '사도'에서 어린 정조를 연기한 이효제가 캐스팅돼 강동원과 함께 2인 1역 연기를 선보인다.

영화는 지난 7일 경남 남해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3개월 동안의 촬영을 거쳐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1983년 서울에서 시작된 그리움의 울부짖음

우리를 감동시킬 명배우 _ 나문희, 박인환

33년 만에 초로의 노인이 되어
압록강국경 갈대숲에 마주선 두 명배우의 명품연기가 기대된다

2015.10.30-11.1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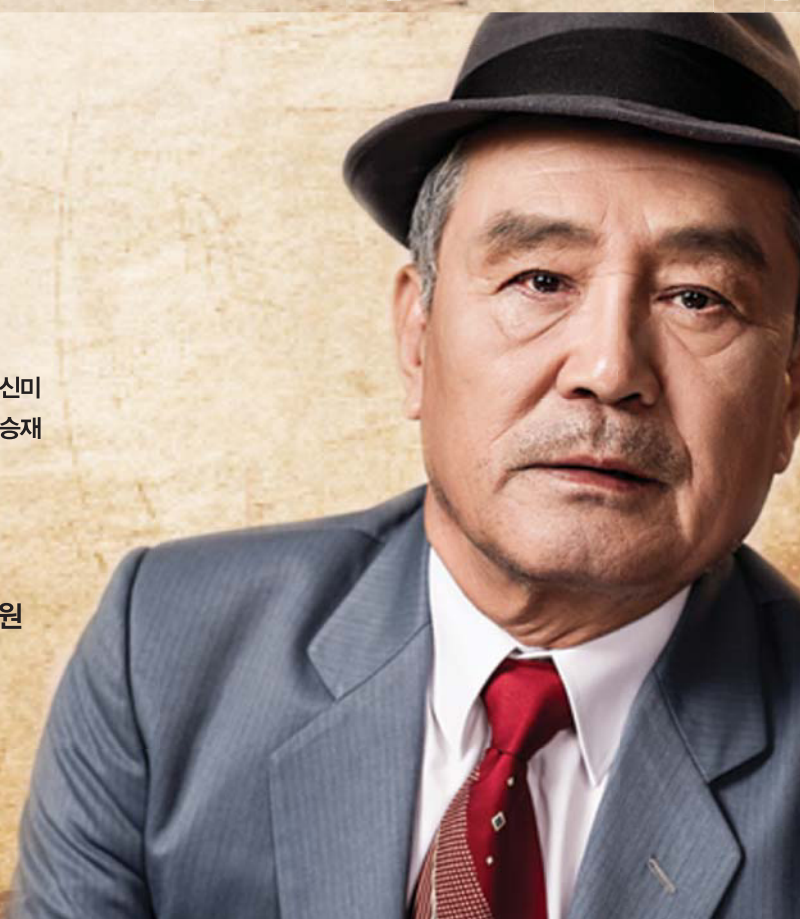
출　연 _ 나문희 박인환 곽은태 왕은숙 권명현 주성중 오성림 원유석 임승연 박정아 박선옥 이신미 이경준 박성훈 신대성 고준식 이연경 유　미 박원진 한일경 정선영 홍은주 우현아 이승재 김범교 허도영 김형석 주경환 김수영 조현태 송종현 도레미 박경진 김은별

예매처 _ 세종문화티켓 www.sejongpac.or.kr 02-399-10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관람료 _ VIP 110,000원 | R 90,000원 | S 70,000원 | A 50,000원 | B 30,000원

주　최 _ (재)세종문화회관 | 제작 _ 서울시뮤지컬단,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의 | 서울시뮤지컬단 02-399-1772~3

가을 밤 적시는 오케스트라 향연

국제디자인총회
세계 디자인 거물들, 광주로

30여개국 3000여 명의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최대규모의 디자인축제'가 열린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이 '2015 국제디자인총회(IDC)'를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한다.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국제디자인협의회(Ico-D),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I) 등 영향력 있는 주요 디자인 단체와 디자인 이론의 선구자 빅터 마골린(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명예교수), 체험 마케팅의 대가 번 슈미트(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글로벌 디자인 컨설팅사 프로그 디자인의 설립자 하르트무트 에슬링거 등 권위자들이 참가한다. '2015 IDC'의 주제는 '이음(Eeum·Design Connects)'이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며 각 분야를 연결하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
16일 정명훈의 브람스 이중 협주곡
23일 낭만 가득한 실내악 시리즈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 최흥식)이 10월 실력파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16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정명훈의 브람스 이중 협주곡' 무대가 열린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과 바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

전반부에는 정명훈과 서울시향은 브람스의 마지막 대규모 관현악 작품인 '이중협주곡'을 연주 한다. 브람스 '이중 협주곡'은 호흡이 검증된 솔리스트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오는데서 성패가 갈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시향 악장이자 뛰어난 독주자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베틀린 루세브와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현악단 수석이자 지휘자로도 활약 중인 첼리스트 루이지 피오바노가 협연자로 나선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향

루이지 피오바노는 서울시향의 객원 첼로 수석으로 말러 교향곡 5번을 비롯한 수많은 콘서트에 참여해 환상 호흡을 자랑해온 바 있다. 뛰어난 음악성과 시대에 편향되지 않는 해석력을 지닌 두 음악가의 연주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후반부에는 바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선보인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과 함께 20세기의 고전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작품으로 민족적이면서 모던한 바르토크의 음악적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오케스트라의 기능미를 탐구하기에 최적의 곡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23일 오후 7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는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실내악 시리즈 : 포레 스페셜 II'를 개최한다.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을 조명하는 3월에 이은 두 번째 무대다.

이번 공연에서는 포레 실내악의 전-후반기를 각각 대표하는 '피아노 사중주 1번'와 '피아노 삼중주, Op. 120', 소품으로 무대에 자주 오르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와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초견용 소품'을 연주한다.

재능과 테크닉, 음악성을 인정받은 다섯 명의 서울시향 현악 단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부악장인 신아라를 비롯해 제 2바이올린 수석 김덕우, 비올라 강윤지, 첼로 김소연, 장소희가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박진우가 함께 한다.

낭만주의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포레의 대표 실내악 작품들을 서울시향 단원들의 밀도 있는 앙상블로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리다. 공연 문의 1588-1210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수확의 기쁨 담긴 녹두 음식

◆ KBS1 '한국인의 밥상' 오후 7시 30분

평생 녹두 농사를 지어온 정영애 할머니는 매년 곡식을 거둬 자식들에게 보내는 게 삶의 큰 즐거움이다. 수확에서 탈곡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고 고된 작업이 즐거운 것도 그 때문이다. 걸쭉한 녹두칼국수와 돼지비계로 부쳐 먹는 녹두빈대떡까지 수확의 기쁨이 담긴 녹두 음식과 즐거운 만남을 갖는다. 아울러 뛰어난 해독작용을 지녀 가정의 비상약으로 이용됐던 녹두의 숨은 효능을 알아본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KBS2 '해피투게더' 오후 11시 10분

'대세배우' 조정석이 출연해 자신의 물건에 숨겨진 다양한 사연들을 풀어놓는다. 이어 다트, 태권도, 기타 연주, 제기차기 등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낸다.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 40분

윤정수와 가상결혼생활을 하게 된 김숙은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공개한다. 잡지에 나올법한 세련된 인테리어에 반한 윤정수는 김숙이 숨겨진 여성미에 마음을 빼앗긴다.

◆ JTBC '썰전' 오후 10시 50분

지난 10일 열린 북한의 열병식 행사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예측에 나선다. 여권의 중국통인 구상찬 전 상하이 총영사는 북-중 관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OCN series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11:55 안녕 우리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유자식상팔자 (재) 10: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35 마녀사냥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05:4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2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수요미식회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5:20 요술 07:20 썸데이 08:30 오리지널스 10:20 신의 퀴즈 시즌2 11:20 무비스토커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녹화중계 국회 대정부 질문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10 통신 130년 특집 통신, 인간과 통하다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그녀는 예뻤다 (재) 13:30 리얼스토리 눈 13:55 MBC스포츠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골프 15:55 마법천자문 16:25 오늘 플러스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재) 14:00 문화가중계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00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00 두번째 스무살 (재) 17:40 코미디 빅리그 (재)	12:30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2 14:10 에이전트 오브 쉴드 15:00 CSI 시즌12 16:40 오리지널스
18:00 6시 내고향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코리언 지오그래픽 23:00 KBS 뉴스라인 23:40 기록유산, 인류 문명의 기억 24:30 한글날 특집 끌림 (재)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비타민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경찰청 사람들 2015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유자식상팔자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15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MBN협동프로젝트 신 부자수업 21:45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9:20 수요미식회 (재) 20:40 젠틀맨리그 21:40 어쩌다 어른 (재) 23:00 슈퍼스타K7 24:40 집밥 백선생 (재)	18:20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 20:20 에이전트 오브 쉴드 21:10 고담 22:00 이스트엔드의 마녀들 23:50 정조암살 미스터리 8일

슈틸리케호, 35년 만의 한해 최다승 눈앞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한국 대 자메이카 경기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경기 도중 선수들에게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14승3무1패 기록
내달 미얀마·라오스전
모두 이기면 16승 달성

데뷔 1돌을 맞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 체제의 한국 축구가 35년 만의 한 해 최다승을 눈앞에 뒀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슈틸리케호는 올해 18번의 A매치 중 14번을 승리로 이끌며 14승3무1패를 기록했다. 내달 미얀마·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두 경기에 모두 승리하면 16승을 올리게 된다. 지난 6월 미얀마의 원정 경기에서 2-0, 라오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8-0으로 승리한 바 있어 무난히 승수를 챙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축구가 한 해에 16승을 달성하는 것은 1980년 이후 35년 만이다. 16승은 역대 기록으로는 1975년(26승)과 1978년(24승), 1977년(20승)에 이어 역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 축구는 1980년 16승을 올린 이후 A매치 15승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82년 15승7무9패, 1990년 15승6무10패, 3년 뒤에는 15승9무4패를 각각 기록했다. 1997년(15승5무3패)에도 15승 고지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다. 2001년 이후에는 10승(2004·2006·2010·2011년)이 최고였다.

이번 기록은 A매치가 20경기를 훌쩍 뛰어넘었던 1990년대와 비교해 올해 20경기(미얀마·라오스전 포함)만에 16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8할의 승률은 역대로는 두 번째 기록이다. 1956년 대표팀은 11승1무1패를 기록하며 한 해 84.6%의 승률을 올린 바 있다.

지난 1월 열린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홈팀 호주에 1-2로 진 것이 올해 유일한 패배다. 3월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1-1), 8월 동아시안컵에서 북한(0-0), 일본(1-1)과는 무승부를 기록했다.

슈틸리케호는 또 자메이카전에 승리함으로써 아시안컵 호주에 패배 이후 무패 행진도 11경기로 늘렸다. 2010년 10월 일본과의 평가전을 0-0으로 비기고 2011년 6월 7일 가나전을 3-0으로 이길 때까지 12경기 연속 무패(승부차기 패배 제외)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의 최다 무패 행진이다. 올해 치른 18경기 중 아시안컵 결승에서 호주에 2골,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과 동아시안컵 일본전에서 1골씩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15경기를 실점하지 않았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유로2016, 네덜란드 없다… 31년 만의 탈락

체코에 2-3 패… 본선행 좌절
터키, 아이슬란드 제치고 3위

네덜란드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예선에서 체코에 패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네덜란드는 14일(한국시간)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16 예선 A조 10차전에서 10명이 싸운 체코에 2-3으로 졌다. 이로써 4승1무5패(승점 13) A조 4위의 성적을 거둬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체코는 7승1무2패(승점 22) 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네덜란드가 축구 메이저 대회에 오르지 못한 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이다.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은 1984년 프랑스 대회 이후 31년 만이다.

이날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네덜란드는 경기 초반부터 체코를 밀어붙였지만 득점에 실패해고 오히려 전반 24분 체코 카데라벡에 선제골을 내줬다.

네덜란드 선수들이 14일(한국시간)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16 예선 A조 10차전에서 체코에 2-3으로 패한 뒤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후 슈랄의 추가골과 판페르시의 자책골까지 이어지며 0-3으로 끌려갔다. 후반 들어 훈텔라르와 판페르시가 추격골을 넣었으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같은 조 터키는 경기 막판 결승골을 터뜨리며 아이슬란드를 1-0으로 물리치고 조 3위로 본선행 막차를 탔다. 아이슬란드도 조 2위로 본선행에 올랐다.

/하희철 기자

전국체전, 내일 강릉서 개막
47개 종목 1만8000여명 경쟁

제9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막을 올린 뒤 22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강릉종합경기장 등 도내 38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고등·대학·일반부로 나눠 총 1만8000여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벌인다. 경기 종목은 모두 47개로 이중 바둑과 수상스키, 택견은 시범 종목으로 치러진다.

이 중 핸드볼과 기계체조, 복싱, 펜싱, 요트,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은 내년 리우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볼링, 하키 등의 종목과 함께 미리 경기가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내년 열릴 리우 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화려한 올림픽 경력을 자랑하는 사격의 진종오는 부산광역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 양궁에선 기보배가 광주광역시 소속으로 출전한다. 역도의 사재혁도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관심거리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2014년 대회까지 13년 연속 종합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 우승을 노리는 경기도를 서울이 따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체전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16일 오후 5시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지난 3일 강화군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735명의 주자에 의해 921.1㎞를 옮겨져 개회식날인 16일 성화대를 밝힌다.

/하희철 기자

시카고 컵스, 세인트루이스 꺾고 NLCS 진출

4차전서 6-4 승리… 12년만에 나서

시카고 컵스가 14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 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6-4로 꺾었다.

1차전 패배 이후 2, 3차전을 내리 따냈던 컵스는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만들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진출을 확정했다. 컵스가 NLCS에 나서는 것은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

2011시즌부터 4년 연속 NLCS 진출했던 포스트시즌의 강자 세인트루이스는 연속 기록에 종지부를 찍었다.

1회초 스티븐 피스코티에게 투런포를 맞은 컵스는 2회말 2사 1, 2루에서 8번 타자 겸 선발투수 제이슨 하멜의 내야 안타로 한 점을 만회한 다음 하비에르 바에스의 통렬한 우월 홈런으로 순식간에 4-2로 뒤집었다.

세인트루이스는 6회초 안타 4개를 집중해 2점을 뽑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자 컵스는 6회말 앤서니 리조, 7회말 카일 슈와버가 잇달아 솔로포를 터뜨려 승기를 잡았다.

시카고는 선발투수 하멜이 3이닝 2자책으로 내려간 이후 불펜 투수 7명을 투입하는 총력전으로 승리를 지켰다. /하희철 기자

시카고 컵스의 마무리 투수 헥터 론돈이 14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뒤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생활 영어

It's very hot today

A: It's very hot today, right?

B: Yes. It's really humid, too.

A: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B: Oh, it's already this time of the year.

This year's monsoon will begin soon.

A: It is gloomy already. I hate rain.

B: I don't mind it. It feels refreshing.

오늘 무척 덥네요

A: 오늘 무척 덥네요, 그렇죠?

B: 네. 게다가 정말 습해요.

A: 내일 비가 올 거래요.

B: 아, 벌써 연중 이맘때가 됐군요.

올해 장마가 곧 시작될 거예요.

A: 벌써 잔뜩 흐려 있네요.

저는 비가 싫어요.

B: 저는 괜찮은데요.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문법Point

날씨나 기후를 말할 때는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 today 같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는 문장 끝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a little, really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be동사 다음에 넣는다.
ex) It was warm today. 오늘은 따뜻했다.
ex)It was a little chilly at night. 밤에는 약간 쌀쌀했다.
ex)It is really cold. 날씨가 정말 춥다.

'be동사+형용사' 대신 날씨를 나타내는 동사로 말할 수도 있다.
ex)It raine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다.
ex)It was raining all day.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Words

humid 습한
monsoon 장마철 (=rainy season)
gloomy 잔뜩 흐린
refreshing 상쾌하게 하는

* this time of the year : 1년 중 이맘때
* I don't mind it. : 나는 괜찮아요.
– 동사 mind는 '꺼리다, 신경 쓰다'라는 뜻이니까 I don't mind it은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뜻이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8				6
	7				5	9		4
	9	5	4		1	2		
			8					9
		4				6		
9					2			
		9	3		7	8	4	
3		1	5				9	
2				1		5		

	4	8						
	1		9	8	3	4		
2			4					
5				7		1	4	
7			1		6			3
	3	6		5				2
					9			4
		2	5	4	7		6	
						5	7	

스도쿠 정답

4	2	3	7	8	9	1	5	6
1	7	6	2	3	5	9	8	4
8	9	5	4	6	1	2	3	7
6	1	2	8	5	4	3	7	9
7	5	4	1	9	3	6	2	8
9	3	8	6	7	2	4	1	5
5	6	9	3	2	7	8	4	1
3	8	1	5	4	6	7	9	2
2	4	7	9	1	8	5	6	3

9	4	8	7	2	1	6	3	5
6	1	5	9	8	3	4	2	7
2	7	3	4	6	5	9	1	8
5	8	9	3	7	2	1	4	6
7	2	4	1	9	6	8	5	3
1	3	6	8	5	4	7	9	2
3	5	7	6	1	9	2	8	4
8	9	2	5	4	7	3	6	1
4	6	1	2	3	8	5	7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서 걱정입니다
주변을 깔끔히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하세요

해바라기 여자 67년 8월 2일 음력 19시~21시 30분

Q 올해는 특히 몇 달 전 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직건도 있지만 생활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고 마음이 계속 불안한건가요. 저한테 이직 관련 건 말고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건지 좋은 변화면 불안하진 않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혹여 앞서 상담 신청 한 것과 같이 채택이 되면 지면이 허락하는 한에서 아니면 (해바라기라는 닉네임으로) 간단히라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A 앞에서도 상담을 신청하신 분인데 사주에 정재(正財) 정관(正官)이 있는 분들이 정확하고 세상을 너무 바르게 사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바르게 살다보니 조그만 일에도 신경 쓰이고 많이 예민해지는데 그럴수록 불안해하지 말고 집안의 대청소와 방안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또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습득하고 회계공부를 권했습니다.

필자가 늘 하는 얘기로 60갑자(六十甲子)의 흐름 속에서 개개인들은 알게 모르게 운의 시험대에 놓여 집니다. 직업이나 재운(財運)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주에 달려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며 작은 부자는 개인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인지상도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작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귀하와 같은 사주는 타당한 재물 외에 재(財)를 탐하지 않기에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귀인의 출현이 이루어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광천수(鑛泉水)의 형상으로 수원이 풍부하니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디는 저력이 있습니다. 꾸준히 익숙했던 현실에서 벗어나간다는 현실이 고독감과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며 직장의 불안정이 최근의 일시적 심적 불안감 입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에서 직업의 형살이 오기에 직장에서 한차례 충격이 가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미래의 얘기로 2020년이 지나서 외화내빈 내적으로 금전때문에 고통이 심하게 올 수 있으며 건강상으로는 신장, 냉증을 겪기 쉽고 현침 살로 2020년 이후 수술수가 있으니 보험은 가입하고 이미 가입된 보험에 해약하지 않도록 하며 누군가와 거래가 이루어져야한다면 다시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5일 (음 9월 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유망한 업을 물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60년생**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72년생** 이성과 다툼수가 있습니다. **84년생** 근심만 쌓이고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갑니다.

49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61년생**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73년생**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85년생 이성간에 문제는 해결은 되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50년생 전공을 살리지 못합니다. **62년생** 새롭게 직업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74년생** 주위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86년생**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격입니다.

51년생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없애도록 노력하세요. **63년생** 육신의 고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75년생**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휴식하세요. **87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5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4년생** 주변에서 다가오는 여성을 조심하세요. **76년생** 노력하면 대가를 얻게 됩니다. **88년생** 마음만 급하고 실천은 안일하니 뜻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53년생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65년생** 은인이 원수가 되니 단호히 거절하세요. **77년생** 우유부단하면 주변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89년생** 사사롭게 흐르지 않으면 크게 쓰일 것입니다.

54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66년생**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78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90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55년생 좋은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67년생** 미래의 계획을 진심으로 고민해보세요. **79년생**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91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56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68년생**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 운입니다. **80년생** 의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광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92년생** 과음은 절대 금지!!

57년생 지금의 사업에 충실하세요. **69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81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세요. **93년생**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58년생 망설임보다는 자신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70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82년생** 새로운 시도는 피하고 마무리에 힘쓰세요. **94년생** 서두리지 말고 차근차근 노력하세요.

59년생 기대하던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71년생** 노력만큼 결실을 맺기는 힘듭니다. **83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동료와 의논하세요. **95년생**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본무 LG회장과 독일정부 50년 인연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구인회 창업주부터 시작한 LG그룹과 독일정부의 인연이 구본무 LG그룹 회장까지 이어지면서 50년 넘은 오랜 우정이 빛을 발휘하고 있다.

구 회장이 몸소 나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한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독일 대통령에게 공장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LG의 첨단·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직접 세일즈 한 셈이다.

14일 구 회장은 직접 LG의 디스플레이,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분과 기술을 안내했고 가우크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이를 세심하게 살펴봤다.

구 회장은 가우크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상호 발전과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 회장은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LG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LG전자와 LG화학이 독일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과 독일의 인연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국내 최초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든 금성사(현 LG전자)는 2년 뒤 전자 산업에서 필수적인 적산전력계(전기 사용량 계산기기)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당시 부산시 온천동에 용지도 마련했지만 자금마련이 문제였다. 이 같이 힘든 시기에 선뜻 돈을 내준 곳이 바로 독일이었다. 당시 처음으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독일 후어마이스터(Fuhrmeister)사로부터 500만 마르크(약 125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 1960년대 독일에서 총 3390만 마르크(약 85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 LG의 밑거름이 됐다.

이 때 독일서 제공한 차관이 창업 초기 LG전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날 구회장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 LG그룹과 독일은 물론 양국관계의 돈독한 우정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연으로 뤼브케 독일(서독) 대통령은 1967년 한국 방문 시 금성사 부산 공장을 별도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로 LG그룹과 독일의 인연은 남다르다.

LG와 독일의 인연은 구인회 창업주의 장남인 구자경 명예회장으로 이어졌다. 구 회장은 1975년 한독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돼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양국 민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1976년 서독에서 유공대십자훈장을 받기도 했다.

구 회장의 세일즈 외교가 한국과 독일의 글로벌 시장 동반 공략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KT&G 백복인 사장에 거는 기대

기자 수첩

정 은 미 <생활문화부 기자>

KT&G 신임 대표에 첫 공채 출신인 백복인 부사장이 선임됐다.

공채 출신인 백 사장이 선임되면서 차기 사장을 놓고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와 정·관계 외압 등의 논란도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백 사장은 전신인 담배인삼공사 공채 출신이다. 1993년 입사 이후 23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 R&D 등 요직을 거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2011년 마케팅본부장 재임 당시에는 하락 추세였던 KT&G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58%대에서 62%로 끌어올렸으며 전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실명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담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으로 내부에서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앞서 자진 사퇴한 민 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전개될 양상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여기에 임직원들의 협력업체와 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까지 속속 드러나면 KT&G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높아질 게 뻔하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KT&G의 해외 수출은 성장세라고 하지만 국내 판매량은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63%에 이르렀던 KT&G의 시장점유율은 올해 초 담뱃세 인상으로 상반기 56%대로 떨어졌다.

인수 이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화장품 사업도 풀어나갈 숙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백복인 사장은 취임식에서 무너졌던 KT&G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영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KT&G가 당장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는 없지만 첫 공채 출신 사장 탄생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인사

◇한겨레 ▷전략기획실 기획팀장 정인택 ▷경영지원실 미디어카페사업팀장 하수정 ▷편집국 인물팀장 김경애 ▷콘텐츠평가팀장 최익림 ▷출판국 이코노미인사이트 부편집장 김연기 ▷연구기획조정실 선임연구원 이정연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소득법인세정책관 안택순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정무경 △과장급 전보 ▷조세분석과장 정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 ▷조세법령운용과장 이호섭 ▷금융세제과장 조만희 ▷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 ▷관세제도과장 황병하 ▷산업관세과장 이승욱 ▷국제조세협력과장 문경환 ▷관세협력과장 김정홍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박상영

◇미래창조과학부 △4급 승진 ▷운영지원과 문성용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병수 ▷연구예산총괄과 배석희 ▷정책총괄과 강신욱 ▷통신정책기획과 배영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진용 ▷창조경제기획과 박진영 ▷정보통신정책과 이상민 ▷주파수정책과 이성학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조문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3급 전보 ▷경영총괄담당관 민재석 ▷서울중앙우체국장 김홍재 ▷서울광진우체국장 이동명 ▷서울강서우체국장 임정수 ▷부천우체국장 정현철 △4급 전보 ▷창구망기획담당관 임낙희 ▷노사협력팀장 김낙현 ▷우편정책과장 박진상 ▷국내우편과장 서동 ▷우편신사업과장 김광수 ▷물류기획과장 오기호 ▷우편집배과장 박상태 ▷금융총괄과장 박태희 ▷예금위험관리팀장 이남훈 ▷예금자금과장 박성용 ▷보험기획과장 신대섭 ▷보험개발심사과장 김상우 ▷보험자산운용과장 신상열 ▷보험위험관리팀장 최충봉 ▷운영지원과장 조정근 ▷동대문우체국장 정지찬 ▷서울금천우체국장 주정균 ▷서울노원우체국장 박주석 ▷서울도봉우체국장 정혁 ▷동서울우편집중국장 장영화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조병호 ▷남인천우체국장 변근섭 ▷고양일산우체국장 김동혁 ▷광명우체국장 김태완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무갑 ▷부산영도우체국장 오후기 ▷천안우체국장 박용규 ▷아산우체국장 조성욱 ▷익산우체국장 이승수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한우향 ▷전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장재혁

◇밀양시 △4급 승진 ▷건설안전국장 류화열

社說

국민건강보험의 두 얼굴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악성체납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에 이른다.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6000세대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별관리세대' 가운데는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액재산 보유자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제한' 세대가 100만세대에 육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급여제한 세대는 94만여세대다.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여세대의 12.5%에 달한다.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내준 보험급여를 나중에 공단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근본대책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체납과 가난한 세대의 미납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최근 민간보험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의료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누수와 비효율이 남아 있는 반면 많은 국민이 보험료 부담에 허덕이고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높이는 등 보험료체계 개편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경제침체와 노인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편작업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에 대해 각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방심은 금물' 가을철 식중독 주의

소비자 119

날씨가 선선한 가을철에도 식중독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가을철은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하지만 낮 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에도 총 67건 1326명의 환자가 발생해 봄철 6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4일 단풍놀이, 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철에 식중독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예방법을 발표했다.

도시락 등 나들이 음식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밥 등 도시락을 준비할 때에는 조리 전·후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고, 도시락의 경우에는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아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고,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음용한다.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으로 다시 챙겨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ROYAL PALACE

대학가와 신도시를 한 곳에 모았다!

720세대 독점은 기본, 5천여명 유동인구와
신도시 핵심상권 최중심 **다인 로얄팰리스**에서 한번에 누리십시오!

서울대, 배곧신도시, 배곧중심상업지구 메인스트리트 핵심 **다인 로얄팰리스 상가**

동급 최고의 전용률
층고 5.5M이상
권리금 無 신규상가
중앙 대형 팰리스가든
중심상업지구 유동인구 밀집
전용면적 대비 최저분양가

배곧신도시 최대상권의 중심에서 완벽한 성공을 잡으십시오!

신도시 중심상권인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들이 주목하는 제2의 대학가 상권 인근 복합 쇼핑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마트 등 집중

배후수요가 풍부한가? 시화, 반월, 남동스마트허브 38만여 명 근로자가 주목하는 상권 로얄팰리스 720세대 독점, 배곧신도시 56,000명이 다니는 길목

트랜드를 앞서가는가? 최신 스트리트 몰, 단지 중앙의 대형 팰리스 가든을 통한 집객 층고 5.5M 이상의 복층상가로 1개 점포에서 2배의 수익 창출

요즘 뜨는 아파텔 분양중!
층간소음無, 화재걱정無, 관리비걱정無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문의전화
02)6334-9395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됨.

시행사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사
신탁사